

충청 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공적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the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Chungcheong Province

이 명 화*

Myung Hwa Lee

국문요약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는 나라의 독립을 찾고자 했던 항일 독립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의 봉건주의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인간해방운동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를 빼앗긴 독립운동의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성평등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한국 근대사 전개 과정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적 및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 연구성과가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충청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오랫동안 봉건성이 지속되어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교육이 필요 없는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가부장적 사고와 함께 도덕체계로 구축된 유교의 오랜 전통과 보수의 벽이 다른 지역보다도 두터웠다. 그렇기에 충청 여성의 개화와 근대화 과정은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고통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사회로 들어섰음에도 전 근대 봉건시대에 머물렀던 충청 여성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각성을

<http://doi.org/10.56475/ygsr.2023.28.2.123>

논문투고일 : 2023.11.15. 논문심사일 : 2023.11.15. 게재확정일 : 2023.12.15.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E-mail: waff58@hanmail.net)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Director

가져다주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전도부인들의 활약은 선교사들의 복음전파력 보다도 우세했기에 충청지역의 기독교 복음과 함께 여성해방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남감리교 여선교사들과 전도부인들의 복음전도로 충청여성들은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세계관을 확대할 수 있었고 의식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교육과 여성들의 굳건한 믿음의 신앙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주었고 여성의 사회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독교로 무장한 근대 개화 여성들은 안으로는 봉건사회를 개혁하고 밖으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맞서야 하는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갔다. 물론 모든 여성이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중세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식민지 체제에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해방보다도 민족 해방의 가치를 우선으로 투쟁하였으며 민족 해방 없이는 결코 여성 해방도 이룰 수 없다는 각오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충청의 여성들은 충청지역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또는 국외로 나가 활발한 독립운동의 자취를 남겼다. 일제와의 항진기에 충청지역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만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였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만 해도 타 지역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국채보상의연 단체들을 만들어 운동에 참여했으나 충청지역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1927년 당시 여성의 유일통일협동전선 조직으로 출범한 근우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음에도 충남지역에서는 그 어떤 지회도 설립되지 않은 사실이 그 현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3.1운동과 학생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 충청여성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3.1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여성들의 자의식과 함께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성차별 없는 독립된 국민국가의 건설의 비전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충청지역 여성사, 여성독립운동가, 젠더적 시각, 전도부인, 국채보상운동, 사애리시, 공주 3.1운동, 공주 영명학교, 양대리 광명학교, 백암리 3.1운동, 윌리엄스, 광주학생운동

— 목 차 —

| | |
|---|---|
| I. 머리말 II. 충청의 지역성과 여성 독립운동가 III. 충청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성격 | IV. 3.1운동과 충남 여성 V.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에 나선 충청여성 VI. 맺음말 |
|---|---|

I. 머리말

한국은 독립운동의 시기에 와서야 성평등의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아갔다. 한국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나라의 독립을 찾고자 한 애국운동이며 동시에 식민지 동화주의를 거부하고 한민족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저항운동이다. 또한 봉건적 신분차별과 성차별을 거부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가는 치열한 해방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독립운동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역사로 기록되었기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여성의 삶과 궤적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 때마다 역사 속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들은 사회의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되었고 그 공적은 잊혀져 버렸다. 그렇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근대 여성들의 삶과 행적을 발굴하고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출신 지역별로 역사를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출신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여성운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미래 여성들에게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출신 별 정체성과 성격을 찾아 내기란 쉽지 않다. 기록이 미비하고 로 독립유공자로 기포상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는 출신지가 ‘미상’인 이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별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제 별로 여성 인물에 대한 관심과 조망은 일찍이 시작된 데 비한다면 충청지역은 뒤늦게 시작되었다.¹⁾ 이전 충청지역 여성으로 주목받은 인물은 유관순 외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립운동 시기에 충청지역 여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내면에서 무엇을 자각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전통적인 가부장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의 충청 출신 여성이란 충청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여성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직업 등의 연으로 충청과 새롭게 인맥관계를 형성한 여성들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의 인물로 발굴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충청여성의 지역적 특성을 아울러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충청남도는 200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청남도 여성의 삶과 역사』를 발간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충청남도 여성의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살펴 본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뒤늦은 작업이라 하겠다.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한 여성의 삶을 살펴보게 된 것은 충청 출신여성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영향을 준 것이다. 『충북여성인물사 I』은 남성 중심적·가부장적 현실 과 맞닥뜨린 충북 역사 속 여성 인물들의 주체적 활동과 경험, 업적 을 들여다보며 충북 여성의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방안을 모색한 소중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을 위시하여 고명자, 김테레사·김명숙·김복희·김인에·김현경·민옥금·박루이사·박안라·방마리아·송명사·양소사·오세라·유예도·윤송당·이경숙·이배세·이소제·이애라·임영신·전밀라·정정화·한이순·한정선·함정섭·홍춘례·황금순 등이 발굴되었다.

II. 충청의 지역성과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사는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과 그 사적을 밝히면서 역사의 퍼즐 조각을 맞춰져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여성사 연구는 지역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여성의 문화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의 한국 여성의 공동체적인 주체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 깊은 작업이다. 그러나 주체적 여성의 삶을 밝히기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고 너무도 오래 잊혀져왔기에 복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 거증 자료의 미비로 인해 남성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서훈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그럼에도 2014년 이후 국내, 미주, 일본, 만주, 중국, 노령 등 각 지역별로, 그리고 의병, 3.1운동, 임시정부, 의열투쟁, 학생운동 등 각 운동계열별로 여성독립운동가 서훈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1. 충청의 유교전통과 여성의 위상

‘충청’은 전통적으로 기호문화권에 속한 지역이다. 주자학적 유교 문화 전통이 지배적인 ‘양반(사대부)의 고장’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1920년대 중반까지도 충청은 “아직까지도 양반의 생각이 흉중(胸中)에 충만한 고로 다른 사회나 인물을 그다지 안중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모두 금일의 충남(忠南)이 타도(他道)에 낙오된 소이(所以)다.”²⁾ 라고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제강점기 충청의 정체성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충청지역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고 간단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충절의 고장’이라는 또 다른 별명으로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2) 靑吾(차상찬), 『湖西雜感』, 『開闢』 46(1924. 4.1).

식민지 동화교육에서도 여성은 ‘효녀’와 ‘열녀’가 됨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이 지배적이었다. 전통적으로 교육에서 배제되었으며 여성 의식화를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부분 여성은 문맹인 채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여성의 삶과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는 일제에 의해 진행된 도시화였다. 충남지역 도시화의 빠른 진척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전 구간의 개통되었고 이어 9월 11일에 경부선 철도와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 여객선이 연결되어 일본인 이주의 교통로가 되면서 식민지 침투도 빠르게 동반되었다. 1919년 이후 일본기업들이 조선철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충남을 통과하는 철도망이 곳곳에 연결되어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1914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면제(面制)로 충남지역은 종전의 37군 387면에서 14군 175면으로 개편되었고 도시³⁾를 중심으로 일본인 식민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인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는 변화되어갔다. 한편 1917년 6월 9일 면제(面制)(조선총독부제령 제1호의 면제와 조선총독부령 제34호 면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24개의 지정면에 일본인 거주자 수가 늘어났으며 상공업 발달과 함께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섰다.

이전 기독교 선교사들이 포교의 거점으로 삼고자 설립된 교회와 학교를 중심 반경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져 나갔으나 점차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 거주민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져 간 것이다. 충남지역에서 도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3) 공주군(공주), 연기군(조치원), 대전군(대전), 논산군(논산), 부여군(부여), 서천군(서천), 보령군(대천면 대천리), 홍성군(홍주), 청양군(청양), 서산군(서산), 당진군(당진), 예산군(예산), 아산군(온양), 천안군(천안)들이 중심 도시로 부각하였다.

대전, 강경, 조치원, 공주, 부여, 천안, 논산, 예산 등지이다.⁴⁾ 특히 대전은 1913년에 호남철도를 개통하면서 경부철도와 호남철도의 분기점이 되어 교통의 요지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본인 식민에 편리한 도시화가 촉진되었다. 조치원은 충북선의 분기점이 되어 백제 구도(舊都)인 공주와 부여로 갈 수 있어 일본인 관광객의 편리를 제공하였다. 한편 천안은 경남철도의 분기점이 되어 온양온천, 도고온천, 유성온천 등 온천지대는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업지구로 발전해 나갔다.

충남은 과거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의 전화를 겪은 민중의 기억 속에 면면히 반일이 기억이 대물림되어 내려왔고 홍주의병을 비롯해 독립의군부, 광복회 충청도 지부, 조선민족대동단, 대한독립애국단, 대한건국단, 광복단 결사대, 주비단, 신간회 충남지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약과 함께 제1차 유림단운동 등의 치열한 항일운동이 있었고 민족차별 철폐와 민족 생존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 농민운동과 청년운동 등 각계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에 오늘날 충남은 애국 충절의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근대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한 ‘열녀’와 ‘효부’로서의 삶이 모범적인 여성의 길로 제시되어 왔다. 독립운동 시기에 여성들은 자신들을 ‘국민’이라는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봐주기를 염원했지만 그녀들의 가족과 독립운동의 동지인 남성들까지도 여자들에게는 여성의 성(性)역할만을 강요함으로써 여성들을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4) 1930년에는 읍면제의 실시로 충남에는 공주, 대전, 강경, 조치원, 천안이 읍으로 승격된다. 1932년에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전은 충남의 대표도시로 자리를 굳혔다.

2. 기독교 전래와 사에리시의 여성교육

여성들의 개화과정은 기독교의 전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충청지역의 기독교 전래는 타 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 크게 뒤쳐졌다. 근대로 들어와서도 충청 여성의 개화(開化) 과정은 도덕체제로 구축된 유교의 오랜 전통과 보수의 벽이 두터웠기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고통스러웠다. 여전히 중세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당대 환경에서 기독교의 복음전파와 선교사들의 교육사역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른 여성들의 각성은 자아혁신은 물론, 충청지역의 전통사회의 지축을 흔들어놓는 변화를 일으켰다. 가부장적인 봉건문화는 기독교 전파와 함께 여성들에게 신교육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여성들은 여성들을 에워쌓던 굴레와 구속,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기독교도로 개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여성의 삶과 의식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며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문맹의 타파는 곧바로 의식화를 동반하였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 전파가 가져온 굳건한 신앙심으로 무장된 여성들은 ‘반봉건’·‘반식민’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과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조선총독부의 여성정책은 식민지체제에 순응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을 육성하는데 두었기에 의식화된 기독교 여성들의 저항을 받았다. 3.1운동 참여하여 독립선언에 동참한 여성들 대부분이 기독교도였다는 사실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한국의 근대교육은 1876년 조선에 처음 입국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선교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충청지역은

1895년경에 침례교 선교사들이 공주에 본부를 두고 전교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침례교는 공주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5년간 선교를 하는 동안 200여 명의 교인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1901년 감리교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튼(William Benton Scranton)과 메리 스크랜튼(Mary Fletcher Scranton) 부인이 공주로 와서 의료사업을 시작했으나 배타적이며 보수성이 강했기에 공주에서의 초창기 기독교 선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남녀가 내외(内外)하는 한국 관습으로 인해 남자선교사들은 여성들에게 포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스크랜튼(Mary Fitch Scranton) 여사는 여성 포교를 위해 전도부인을 배출하였다. 당시 교회에 헌신할 수 있었던 여성이란 남성들에게 학대받고 가난과 무지함으로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거나 의탁할 곳이 없는 불행한 여성들이었다. 기독교 포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헌하는 삶 자체가 그녀들에게는 구원이었다.

한편 북감리교도 1901년 7월경에 공주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충청도 출신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첫 여성은 박해숙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도부인 출신의 박해숙은 1901년 충주, 목천, 진천, 입장, 직산, 병천, 청주 등지를 다니며 기독교를 전도해 12개 마을에서 470명의 개종자를 얻는 큰 성과를 얻었다.⁵⁾ 이후 공주와 충남지역은 기독교 선교연회의 협정에 의해 북감리교의 선교구역으로 정해졌다.⁶⁾

5) 서원보, 『Wilbur C. Swearer, 1902년 충청도지역 보고』, 『미감리회 연회록』, 1902.

6) 1898년 북감리교 선교사 스웨러(Wilbur C. Swearer: 徐元輔)는 1898년에 공주와 천안지방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1899년에 홍성 해미와 천안 목천에 감리교 교회를 세웠는데 특히 목천교회는 경기도 이천의 덕들교회 출신의 전도사들이 세운 교회이다. 1900년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기독교 각 교파 간에 포교 경쟁이 치열해지자 각 교파 간에는 선교 구역을 나누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01년 5월 제 17차 미감리교 선교회에서 한국 전국의 선교구역을 1개 지방의 9개 구역을 3개 지방의 2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서울, 경기, 공주 일대의 남부지방은 감리사 스크랜튼이 선교활동을 총지휘하였다. 1906년 6월 18일에 개최된 제2회 기독교 선교연회에서 서울, 제물포, 평양, 영변, 공주

1903년 정식으로 미 감리교의 파송을 받아 충청 지방에서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는 윌리엄 맥길(William B. McGill)이다. 1년간 공주지역에 머물면서 의료사업에 주력하면서 전도에 힘을 썼다. 충청지역 선교 초창기에 남녀신자 분리를 위해 중간에 커튼을 치고는 남자신도들에게 부인과 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권유하면 남자신도들은 “여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고 아무튼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꾸했다고 한다.⁷⁾ 이처럼 충청지역에서 여성에게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만큼 힘든 일이었다.

충청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선교사는 앨리스 해먼드 샤프(Alice Hammond Sharp, 1871. 4. 11~1972. 9. 8)이다. 1900년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앨리스 하몬드는 1902년에 한국으로 온 로버트 샤프(Robert Arthur Sharp) 선교사와 1903년 6월 30일 이화학당 메인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⁸⁾ 앨리스 해먼드는 샤프부인(Mrs Robert Arthur Sharp) 즉 사에리시(史愛理施)부인이란 호칭으로 친근하게 불리우며 충청지역 여성교육에 큰 족적을 남기었다.⁹⁾

등 5개 지방으로 선교구역을 분할하고 공주지역 선교본부는 경기도 동남부와 충청도 지역 교회를 모두 포괄, 감리하게 되었다. 이후 1907년 6월 20일에 열린 미감리교 조선연회에서 천안지역이 공주 동지방으로 분리 독립하였고 1909년 9월 각 선교구역을 나누는 최종 합의에서 공주와 충남지역은 미북감리교 관할로 결정되었다. 1912년 3월 개최된 북감리회 조선연회에서 공주지방은 공주 동지방(천안)과 공주 서지방(공주)로 분할되었다.

- 7) 임연철 지음, 『이야기 사에리시』, 신앙과지성사, 2019. 9, p.53.
 8) 감리교선교사들 이름을 살펴보면, 병천 지령리 교회(1898) 설립 감리교 공주지방구역장 스웨러(徐元輔 1907), 입장 양대 광산병원 설립 맥길리(1903), 충청지방감리사 케이틀(1905), 여성교육 스웨러 부인(1907), 아더샤프(1904), 공주·천안지방감리사 테일러(Convin Taylor, 1907), 버스커크(James Dale Van Buskirk, 1907), 스크랜튼(1908), 윌리엄(1917), 샤프(1906), 샤프 부인(1916), 노만 하운드(Found Norman M.D. ; 방은두), 아멘트(1918), 귀에다 부인(1931), 천안지역 여성 선교사 베어러(배이레, 1934) 아멘트 부인(1935) 천안지역 베어러양 언니 채핀부인(1938), 주덕(1950), 주디(1951), 청년운동 청년관 관장 시드웰(1956), 시드웰 부인(1959), 그리고 침례교 존레위(이대위)(1953) 선교사 등이다.
 9) 샤프 부부는 불모지인 충청지방을 순회 전도를 하였고 1904년부터는 공주지역을 전담

충남지역의 근대 교육의 시작은 1898년 11월에 세워진 공주 사립 소학교가 그 효시이다. 당시 충청도 관찰사였던 김가진이 희사한 1백 원을 바탕으로 심익섭에 의해 세워졌다. 이어 승지 김병연이 안면도에 세운 광명학교(1901)와 지양학교(1904), 서령학교(1904), 천영학교(1906)가 설립되었고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60교의 관공립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공주(1906), 강경(1907), 홍주(1907), 온양(1908) 등 4개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한편 1910년 2월 한국통감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801개 기독교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충남지역에는 종파별로 감리교 2개교, 성공회 1개교, 천주교 2개교, 종파 미상의 13개교로 모두 18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충청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기독교 전교 활동이 늦게 이루어졌으며 근대교육의 시작 또한 늦었음을 알 수 있다.

1906년에 내한한 미 감리교 여선교회 해외 선교단 소속의 윌리엄스(Frank Earl Cranston Williams, 禹利岩) 선교사가 세운 공주 영명남학교와 함께 사애리시(史愛理施) 부인이 세운 명선여학당은 여성교육의 시초가 되었다. 명선여학당은 1907년에 영명여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08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는 타 지역 기독교학교 보급에 비하면 20년 정도 늦은 시기였다.

사애리시 부인은 전교활동 중에도 여성교육에 진력하며 여러 지역의 교회 순행을 다니면서 영민한 여학생들을 발탁해 고등교육을 받도록 추천하였다. 사애리시 부인은 충청지역에서 사경회나 부흥회가 열릴

선교지로 삼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충청 각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906년 3월 5일 전교 활동 중 발진티부스에 감염되어 남편 샤프 선교사가 사망하자 사애리시 부인은 잠시 본국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1908년 말 공주로 돌아와 다시 선교를 시작하였다(임연철 지음, 『이야기 사애리시』, 신앙과 지성사, 2019).

때 성경공부 중 에 영민한 학생들은 발탁하여 교비생으로 이화학당 및 이화 고등보통학교로 진학시켰고 일부는 동일 감리교계인 전주 기전 여학교, 개성 호수돈 여학교나 미리흙 여학교 등으로 전학시켜 학업을 잇게 하였다. 이렇게 발탁되어 고등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은 후일 각계각층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으로 성장하였다. 아산 백암리 3.1운동을 일으킨 김복희와 아우내 3.1운동을 일으킨 유관순과 유예도, 그리고 공주 3.1운동에 참여한 김현경과 박루이사(박회숙) 등은 모두는 사애리시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장면 양대리 3.1운동을 준비시키며 어린 여학생들에게 3.1운동을 주도하도록 추동한 이는 양대리 광명학교 교사 임영신이었다. 그녀 역시 사애리시 부인의 발탁으로 전주 기전여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사애리시 부인은 이후로 1909년 논산의 영화여학교와 1913년에 강경에 만동여학교 등을 설립하여 여성교육에 나섰지만 학령기에 달한 여자아이들 모두에게 교육혜택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처럼 충청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근대교육의 보급이 뒤쳐있었고 극히 일부 여학생들만이 근대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기독교 근대교육은 여성들에게 인간 모두는 천부적 인권을 타고난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심어주었고 여성은 의식화된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하였다. 이렇게 여성은 봉건적 굴레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으나 조선총독부는 공립여학교를 설립하고 여성교육을 양적으로 확대시켜나갔으나 식민지체제에 순응적이고 복종적인 여성 육성을 목표로 하였기에 여성교육은 여전히 식민지 모순에 처해 있었다.

Ⅲ. 충청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성격

1. 3.1운동 이전의 충청여성

1907년에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충청도에서는 도내 54개 군의 유지신사의 명의로 국채보상의조권고문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충청도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집요한 방해와 함께 운동 주체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지만 국민평등 및 주권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모집에 참여한 인원은 경북(31,520명)이 17,445원이고 참여인원이 10,000명 정도 적은 경남(25,058명)과 황해도(21,698명)가 각각 16,221원과 16,269원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충남은 35,940명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2번째로 많은 수가 참여하였으며 모집된 의연금은 13,961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 순이다.

여성들은 대구 남일동 부인들이 ‘경고 아부인동포라’라는 격문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전국 여성들이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고 4월에는 탈환회를 조직하여 취지서를 통해 여성들의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래 국채보상운동 관련 여성단체들은 유지부인(양반부인, 문중부인)과 종교계(기독교, 불교, 여승), 기녀(기생, 주희, 퇴기, 의녀)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충북지역에서는 진천군 국채보상부인회(만승면 광혜원 내)와 음성군 금자면 무극리 패물폐지부인회, 보은군의 양반부인회, 금산 봉황정부인회 등이 있는 등 50여개가 넘는 여성단체가 존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충남지역에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한 여성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비록 단체를 형성하지는 못했으나 여성들은 현금과 함께 패물 감선(減膳)과 감찬(減饌)·감반(減飯) 등의 운동을 통해서 의연금

수합이 이루어졌으며 아산군, 부여군, 덕산군, 직산군 등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한 사례의 미담들이 신문에 소개되어 훈훈한 반향을 일으켰다.¹⁰⁾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더 이상 규중의 여자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2023년 11월까지의 아래 <표 1>에 통계를 통해 여성독립유공자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훈격별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2023. 11 현재)

| | 계 | 건국훈장 | | | | | |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 |
|----|----------------|----------------|-------|--------|---------|----------|-----------|----------|-------|
| | | 소계 | 대한민국장 | 대통령장 | 독립장 | 애국장 | 애족장 | | |
| 여성 | 660(7) | 217(5) | 2(1) | 1 | 9 | 42(1) | 163(3) | 69(2) | 374 |
| 남성 | 17,255 (69) | 11,481 (64) | 31(4) | 89(10) | 813(35) | 4,445(3) | 6,126(12) | 1,450(5) | 4,301 |
| 합계 | 17,915 (76) | 11,698 (69) | 33(5) | 90(10) | 822(35) | 4,487(4) | 6,289(15) | 1,519(7) | 4,675 |

* ()는 외국인 수.

10) 충남 도내 주민 중 최초로 국채보상금 의연자는 여성이다. 주전원 경(主殿院卿) 양성환(梁性煥)의 딸로 아산 백암리의 이씨 집안으로 시집 왔으나 일찍이 과부가 되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이름 없이 성씨만 알려진 양소사(梁召史)이다. 그녀는 제국신문사로 국채보상운동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편지와 함께 의연금 20원을 보내왔다. 이는 충남지역민들의 애국심을 각성시켜 모금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노동자인 안봉삼이라는 자가 국채보상의연금 모집 소식을 듣고 노동임금을 모아 80전의 금액을 의연하고자 당시 22세인 부인에게 돈을 맡기었는데, 며칠 후 의연금 납부를 위해 맡긴 돈을 부인에게 요구하자, 부인은 자신의 머리를 삭발해 다래 2개를 만들어 판매한 돈을 보태어 2환의 돈을 남편에게 내놓았다고 하는 미담이다. 한편 아산 장수동(長水洞)에 거주하는 이주선과 임봉호의 첩인 최소사와 유소사 등도 각각 50전의 의연금을 납부하였다. 부여군에서는 인근에서 열여(烈女)로 이름을 떨치던 이영직의 처 민씨가 품팔이하여 벌은 임금 3원을 의연금으로 출연하였다. 한편 은진군에 국채보상의무금수집소가 설치되면서 보명학교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모금활동이 벌어지자, 여성들은 화장품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 하며 의연금 모집에 앞장섰다고 하며 직산군 성환 학소동에 거주하는 최두경의 부인 서씨와 그녀의 모친 이씨는 은가락지 한 쌍과 은비녀를 출연하여 의연에 참여하였고 임병옥의 처는 반지뿐만 아니라 머리 장신구까지 내놓았다고 하며 가족없이 홀로 덕산군 시동에 사는 도인원의 집에 거주하는 60세의 임소사는 20전을 모금소로 보냈으며 70세에 토기점을 운영하는 과부 박소사도 의연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1990년 상훈법 개정에 의해 현재 독립유공자에게 1등급의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의 건국훈장과 그 외에 6등급의 건국포장과 7등급의 대통령표창이 수여 또는 추서되고 있다. 여성 독립유공자 대부분은 최하 훈격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표창’¹¹⁾ 수여, 혹은 추서를 받았다. 여성독립운동이 출신 지역의 성격을 드러내려면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발굴되고 그 행적이 자세히 밝혀져야만 하고 지역별 비교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현재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은 가족과 주변의 기록에 의한 것이며 밝혀진 내용 만큼만의 공적을 인정받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여성 독립 유공자 수는 총 660명이고 이중 외국인 여성 7명이다. 전체 포상 독립유공자 17,915명(외국인 76명) 중 남성의 수는 17,255명(외국인 69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다. 여성독립유공자의 수는 3.1운동 계열과 학생운동 계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충청지역의 경우는 3.1운동 13명과 학생운동 방면 8명으로 여성 유공자 수는 21명이다. 타 지역에 비해 3.1운동과 학생운동 참여 여성의 수가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발굴이 늦어진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충청은 공주와 직산 양대와 병천, 아산 백암리 3.1운동을 주도한 여성유공자를 제외하면 3.1운동 시위 참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청지역 여성은 대한민국장(독립장) 1명(유관순), 독립장 1명(이애라), 애국장 5명(박유복, 신순호, 이소제, 임수명, 최정철), 애족장 11명(민옥금, 박재복, 오건해, 유예도, 윤희순,

11) 1949년 당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 그리고 외국인 장제스와 호모 헐버트 4명이 처음으로 독립운동 공적으로 포상된 이래 1962년, 1963년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져 1976년까지 총무처 주관으로 407명의 독립유공자가 포상되었고 1977년 원호처 주관으로 포상이 이루어졌고 원호처가 국가보훈처가 된 이래 1986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1995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독립유공자 발굴이 적극 이루어져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4년부터는 독립유공 포상자가 13,7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국영, 이은숙, 정정화 최예근, 한이순, 황금순), 대통령표창 17명 (김복희, 김영순, 김인에, 남상호, 노예달, 민금봉, 민인숙, 민임순, 박경숙, 성경애, 신성녀, 이수복, 이정현, 임해득, 전덕제, 정귀완, 홍금자), 건국포장 2명(김현경, 신창희), 이렇게 총 37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다.¹²⁾

<표 2> 충청지역 여성독립운동가 (가나다순)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계열 | 훈격(포상연도) | 본적 | 공적개요 |
|----|-----|-----|--------------------------|-------|---------------------|-------------------------------|--|
| 1 | 김복희 | 金福熙 | 1903.10.20 ~1987.3.14 | 3.1운동 | 대통령 표창 (2019) |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 96 | - 유관순의 이화학당 2년 선배이다. 백암교회(1901년 최봉현씨가 세움) 안에 설립된 '영신보통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사에리시가 교비장학생으로 추천하여 이화보통학교 4학년으로 편입하고 이어 이화고등보통학교 제1회 입학생으로 들어가 1919 졸업반 당시 3.1운동 참여하고 고향 아산으로 귀향해 백암리 3.1운동을 주도함. 이화여자전문학교 모욕과에 입학해 1921. 3 제3회로 졸업하고 사에리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강경의 황금정여학교 부속유치원 설립에 관여하고 교사로 근무함. 강경 만동여학교 교사로 복무하고 공주 대화정교회의 영명여학교 부속유치원 교사와 영명여학교 시간교사로 복무 |

12) 포상된 여성독립유공자 수의 도별 순위를 나열하면 1. 평안도 131명, 2. 전라도 112명, 3. 경상도 92명, 4. 경기도 61명, 5. 황해도 58명, 6. 서울 52명, 7. 함경도 41명, 8. 충청도 37명, 9. 강원도 23명, 10. 제주도 10명, 11. 외국인 10명(김알렉산드라 포함), 12. 미상 33명 순이다.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직 | 공적개요 |
|----|-----|-------------------|-------------------------|----------|---------------------|--------------------------------|---|
| | | | | | | | 합. 1925 전재풍 목사와 결혼 강원도 김성읍, 평강읍 교회 내 유치원 근무. 1934년에는 경기도 화성군의 천곡교회에서 최용신의 뒤를 이어 강습소 교사, 1937 홍성읍 교회 내 유치원에서 근무. |
| 2 | 김영순 | 金永順 | 1898 ~ 미상 | 국내 항일 | 대통령 표창 (2023) | 충남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 413 | 1919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에 국부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음. |
| 3 | 김인에 | 金仁愛 이명: 崔氣物 | 1898.3.6~ 1970.11.20 | 3.1운동 | 대통령 표창 (2009)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80 | 전주 서문 교회 목사 김인전 목사 여동생. 부친 대에 충청도 한산에 살다가 전주로 이사함. - 성서학교 학생으로 기전여학교 출신 13명과 결사대를 조직하고 전주 남문 밖 시장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피체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¹³⁾ |
| 4 | 김현경 | 金賢敬 이명: 金順点 | 1897.6.20 ~1986.8.15 | 3.1운동 | 건국 포장 (1998) | 충남 공주군 공주면 본동 | -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공주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 중 공주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19. 41 공주시장 만세시위 중 피체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공주형무소에서 柳寬順과 함께 수감됨. 출옥 후 이화학당 전문부 보육과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柳寬順이 옥사했을 때 『아펜젤라』 목사와 함께 형무소를 찾아 유관순의 유해를 인수하여 이화학교장을 치르게 함. |

13) 미출간 김인에, 『全羅北道 全州 紀全女學校 己未年 大韓獨立萬歲運動』, 1957. 2. 13.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직 | 공적개요 |
|----|-----|--------------------|--------------------------|----------|---------------------------------------|----------------------------------|--|
| 5 | 남상호 | 南相好 이명 : 南姓女 | 1890.9.24.~ 1936.3.25 | 3.1운동 | 대통령 표창 (2021) | 충남 천안군 수신면 복다회 리 338 | 김상헌의 처 1919년 4월 1일 천안 병천 아우 내 장날 만세시위에 참여함. 배 우자 金尙憲이 일경의 총에 맞 아 순국하자 南相好는 친척 아 주머니 申氏와 피출소에 투석 하여 유리창을 부수며 강력 항 의하며 屍身을 안고 대성통곡 하다 倭警에 피체되어 옥살이 를 하던 중 熱病을 앓자 공주지 방법원에서 기소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됨. |
| 6 | 노예달 | 盧禮達 | 1900.10.3 ~ 미상 | 3.1운동 | 대통령 표창 (2014) | 충남 공주군 계룡면 경전리 80 | 1919년 3.1운동 당시 이화고등 보통학교 2학년 재학 중 서울 파고다 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고 3월 5일 남대문에서 학생단 주도의 제2차 독립만 세시위에 참여하다 피체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 |
| 7 | 민금봉 | 閔今奉 | 1913.1.7.~ 1946 | 학생 운동 | 대통령 표창 (2019) | 충북 청주군 남이면 양촌리 |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에 1930.1.15 광주학생 운동 동조 만세운동에 참여하 다 서대문경찰서에 피체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취조받고 불 기소 처분되어 10일간 구류에 처함. |
| 8 | 민옥금 | 閔玉錦 이명 : 閔泳淑 | 1905.9.5 ~ 1988.12.25 | 3.1운동 | 대통령 표창 (1986) /애족장 (1990) |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 양대 광명학교(光明學校) 학생 으로 태극기를 제작하며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1919.3.20 입 장 양대리 장날에 同校 학생 80명과 주민 600여 명이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 다 피체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 |
| 9 | 민인숙 | 閔仁淑 | 1912~ 1975 | 학생 운동 | 대통령 표창 (2019) | 충북 음성군 금왕면 신평리 | 1930.1.15 서울 근화학교(槿 花女學校) 보통과 4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종로경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직 | 공적개요 |
|----|-----|-------------------|--------------------------|----------|---------------------|----------------------------------|---|
| | | | | | | 409 | 찰서에 피체되어 경찰범처벌 규칙(警察犯處罰規則) 제1조 제39호에 의거 구류 20일 처분을 받음. |
| 10 | 민임순 | 閔任順 | 1913 ~ 미상 | 학생 운동 | 대통령 표창 (2019) | 충남 대전 탄동면 백운리 | 1930. 1. 15 태화여자학교(泰和女 學校)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동맹휴교에 참여하 다 종로경찰서에 소요죄로 피 체되어 경찰범처벌규칙(警察 犯處罰規則) 제1조 제39호에 의거, 구류 20일 처분을 받음. |
| 11 | 박경숙 | 朴敬淑 | 1895 ~ 미상 | 국내 항일 | 대통령 표창 (2023) | 충남 보령군 청라면 산양리 380 | 1919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애 국부인회 활동을 하다 체포되 어 불기소 처분을 받음. |
| 12 | 박유복 | 朴有福 | 1869.9.10 ~1919.4.1 | 3.1운동 | 애국장 (1995) | 충남 천안군 수신면 복다회 리 341 | 1919. 4. 1 천안 병천 아우내 장날 만세시위 중 일경의 무차 별 총격을 받은 17명의 순국자 중 1인이다. |
| 13 | 박재복 | 朴在福 | 1918.1.28.~ 1998.7.18 | 국내 항일 | 애족장 (2006)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34 | 빈농집안에서 태어나 보통학 교를 졸업하고 1938.10월경부 터 1939.3월경까지 郡是계사 공장 대전공장에서 여공으로 근무하고 양만지백화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들 에게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패 전한다’는 말을 유포했다가 피 체되어 육군형법 위반으로 禁 錮 1년형을 선고받음. |
| 14 | 성경애 | 成慶愛 | 1880 ~ 미상 | 국내 항일 | 대통령 표창 (2023)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 1919년 4월 이후 서울에서 대 한민국애국부인회 및 대한적 십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일 경에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음. |
| 15 | 신성녀 | 申姓女 이명 : 申氏 | 1853.8.17 ~ 미상 | 3.1운동 | 대통령 표창 (2021) | 충남 천안군 수신면 | 1919.4.1 천안 병천 아우내 시 장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직 | 공적개요 |
|----|-----|-----------------------|----------------------------|----------|-----------------------------|--------------------------------|---|
| | | | | | | 복다회 리 | 독립만세를 부르다 피제, 재판 에 회부되어 소요, 보안법 위반 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으나 경성 북 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월 11일정도 구류를 살음. 3.1 운동 당시 67세 고령임 |
| 16 | 신순호 | 申順浩 | 1922.1.22. ~2009.7.30 | 광복군 | 애국장 (1990)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 신건식·오건해 부부의 딸, 박 영준의 처. 1938.8 한국광복진선청년공 작대 입대, 1940.9.17 한국광복 군 참여. 1942. 9월에 임시정부 생계위원회 회계부로 파견되 고 1945.8월 임시정부 외무부 정보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광복을 맞이함. |
| 17 | 신창희 | 申昌喜 이명 :申明 浩 | 1906. 2.22. ~1990. 6.21 | 중국 방면 | 건국 포장 (2018)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132 | 신규식의 딸, 민필호의 처, 민 영수·민영주의 모친. 부친을 따라 중국에 망명, ‘21 년경부터 상해 大韓民國臨時 政府 활동을 지원하고 임정 피 난시절 정보요인과 애국청년 들을 보필함. 1943년 한국독립 당에 가입하여 활동함. 해방 후 중국에 남아 요인들과 교민들 의 환국을 도왔으며 1949년 정 부 수립 후에도 제일 늦게 환국 함. |
| 18 | 오건해 | 吳健海 | 1894.2.29 ~ 1963 | 중국 방면 | 애족장 (2017) | 충북 청원군 문의현 이도면 | 신건식의 처, 신순호의 모친. 1926 세 딸을 데리고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는 중국으로 망 명하여 임정 요인들의 뒷바라 지하며 1940 한국혁명여성동 맹, 1942년 한국독립당에 가입, 활동함. |
| 19 | 유관순 | 柳寬順 | 1902.12.16 ~ 1920.9.28 | 3.1운동 | 독립장 (1962)/ 대한 민국장 |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 |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 생으로 3월 5일 남대문 독립만 세운동에 참여하고 강제 휴교 령으로 학교가 문을 닫자 독립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적 | 공적개요 |
|----|-----|-----|-------------------------|----------|---------------------------------------|--------------------------------|--|
| | | | | | (2019) | 338 | 선언서를 감추어 가지고 귀향하였다. 인근의 교회와 靑新學校 등을 돌아다니며 서울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천안·연기·청주·진천 등지의 교회·학교를 돌아다니며 아우내 장날을 이용,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함. 1919.41 천안 병천 장날 약 3천여 명의 장꾼이 모인 가운데 만세시위운동이 벌어졌고 군중은 천안·병천 간의 전횡줄을 절단하고 전주 1개도 쓰러뜨렸으며 갈전면 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함. 이날 시위현장에서 부모는 사살당하고 본인은 주모자로 피체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해 3년형을 선고받음. 서대문형무소 옥중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19세의 나이로 옥중 순국함. |
| 20 | 유예도 | 柳禮道 | 1896.8.15 ~1989.3.25 | 3.1운동 | 대통령 표창 (1977) /애족장 (1990) |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 | 유중무의 딸, 유관순의 사촌언니. 이화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서울 파고다공원 독립선언 선포식에 가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후 고향 천안으로 내려와 1919.4.1 병천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검거를 피해 피신하던 중 1919.5.26 기소 중지됨. |
| 21 | 윤희순 | 尹熙順 | 1860.8.11 ~ 1935.8.1 | 의병 | 애족장 (1990) | 충북 증원군 엄정면 신만리 740 | - 유희석의 며느리, 유제원의 처 - 1895년 유희석 의병부대에서 부녀자들의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안사람의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직 | 공적개요 |
|----|-----|--------------------------------------|-------------------------|----------|---------------------------------------|-------------------------|--|
| | | | | | | | 병기를 지어 부르게 하고 여성들도 구국활동의 중심이 될 것을 촉구하고 1907~1908에 여자의병을 모집하여 후방에서 의병운동을 지원하였다. 1911년 시부와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망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 노학당을 창립하여 항일운동가를 양성하였다. 맏아들 유운상이 일경에 붙잡혀 고문 끝에 사망하자 낙담 끝에 11일 후 서거함. |
| 22 | 이국영 | 李國英 | 1921.1.15.~ 1956.2.2 | 임시 정부 | 애족장 (1990) | 충북 청주군 대성면 26 | 민영구의 처. 1941. 6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 멤버이며 1941.10 중경 3.1 幼穉院을 설립하고 교사로 활동, 1944 한국독립당 당원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생계부(生計部) 부원으로 활동함. |
| 23 | 이소제 | 李少梯 | 1875.11. 7~1919.4. 1 | 3.1운동 | 대통령 표창 (1963) /애국장 (1991) |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 | 유관순 모친. 1919. 4. 1 병천 장날 만세시위 중 일군의 총격을 받고 남편 유중권과 함께 순국함. |
| 24 | 이수복 | 李壽福 | 1911 ~ 미상 | 학생 운동 | 대통령 표창 (2019) | 충남 논산군 성동면 단봉리 | 1930.1.15 근화여자학교(槿花女學校) 고등과 2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여 만세운동과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 위반으로 구류 20일 처분을 받음. |
| 25 | 이애라 | 李愛羅 이명 : 李愛日 羅 본명 이십숙 | 1894.1. 7 ~ 1922.9.4 | 만주 방면 | 국민장/ 독립장 (1962) | 충남 아산군 | 이규갑의 처, 시숙 이규풍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세에 영명여자학교 교감 이규갑(李奎甲)과 결혼 후 공주 영명학교(永明學校)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1917년 평양의 정의(正義)여학 |

| 순번 | 성 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적 | 공적개요 |
|----|-----|-----|-----|----------|------------------|----|---|
| | | | | | | | <p>교에 전근되어 근무하던 중, 평양 3·1독립만세시위에 가담했다가 평양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함. 석방된 후 서울로 와서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국민대회를 소집할 때 연락활동을 하고 검거를 피해 지하로 잠적한 남편을 대신해 활동하고 독립지사 후일 모금운동을 하였다. 백일이 갓 지난 어린 딸아이를 업고 가던 중 일본 헌병이 아기를 낚아챘고 수배를 하려들자 그대로 도주했는데 아이는 길에 내동댕이쳐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이의 시신은 유득신이 거두어 아현 성결교회 공동묘지에 묻어주었다. 이후 피체되었으나 남편은 상해를 거쳐 러시아로 망명하였고 출옥 이후 이애라는 수원 공주, 아산 등의 지방교회를 다니면서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조직 활동을 이끌었다. 시택이 있는 아산의 산간으로 피신해 동리사람들이 찌다주는 겨개떡 음식으로 연명하며 지내며 감리교 윌리엄스 선교사가 운영한 천안 직산의 양대리 광명학교 교사로 취직했으나 사흘이 멀다 하고 형사들이 찾아와 남편을 찾아내라고 행패를 부리고, 걸핏하면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당하자 시숙 이규풍(李奎豊)이 있는 러시아로 망명할 결심을 하고 선편으로 함북 용기(雄基)항에 도착했으나 배에서 하선하자마자 용기경찰서 순사에게 연행되었다. 여러 차례의 투옥과 고문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경</p>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적 | 공적개요 |
|----|-----|--------------------|---------------------------|----------|---------------------|---------------------------------|--|
| | | | | | | | 잡서장이 마련한 객주집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남편과는 이규풍의 집에서 재회할 수 있었으나 며칠 후 순국하였다. |
| 26 | 이은숙 | 李恩淑 이명 : 李榮求 | 1889.8.8.~ 1979.12.11 | 중국 방면 | 애족장 (2018) | 충남 공주군 정안면 사현리 | 이회영(李會榮)의 처, 이규창의 모친 1910 일기족과 함께 중국 지니성(吉林省) 류허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 설립 등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함. 1913. 11 마적 떼 수십 명이 덮쳐 어깨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음. 1919 베이징(北京)으로 가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다 1925년 귀국하여 고무공장 여공생활과 샛바느질·삿빨래를 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함. 1935년 봄 아들 규창이 주중일본공사 암살기도사건(1933) 및 엄순봉의 상해거류민회장 이용로 살해사건(1934. 3. 25)에 연루되어 13년형을 선고받자 샛바느질 등을 해주고 조반석죽으로 살면서 아들 옥바라지를 함.(이은숙,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 2017) |
| 27 | 이정현 | 李貞賢 | 1909.12.24 ~ 1990.3.26 | 국내 항일 | 대통령 표창 (2020) | 충남 아산군 선장면 대흥리 23-6 | 김연진(金淵鎭, 1993 애족장) 처 본적 마을에 있는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고 1927.8 공인서산여자잠업전습소를 제9회로 수료함. '30년 서울 송인동 조선견직공장 여공으로 일하던 중 1933. 9 상순부터 동년 10월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계열 | 훈격(포상연도) | 본직 | 공적개요 |
|----|-----|-----------------|-------------------------|------|---------------|-------------------------------------|--|
| | | | | | | | 중순까지 노동조합운동에 참여하고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동맹파업을 주도함. 해방 후 1952년부터 충남 아산군 선장면 선창리에서 김연진(남편)과 함께 난민촌과 서당을 개설하고 4H구락부 결성, 농촌운동을 전개함. |
| 28 | 임수명 | 任壽命 | 1894.2.15~ 1924.11.2 | 의열투쟁 | 애국장(1990) | 충북 진천군 이목면 지원리 829 개성출신설도 있음 | 신팔균의 처. 1912 서울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다 환자로 가장해 입원한 남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1914. 그와 결혼한 후 북경, 남만주 등지에서 비밀문서연락, 군자금 모금 일을 수행하고 만삭의 몸으로 귀국해 딸을 낳았다. 그러나 아들이 병사하고 1924.6.20 남편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서울 시직동자택에서 딸과 함께 자결함. |
| 29 | 임해득 | 林海得 이명 : 林亥得 | 1911.7.21 ~ 미상 | 학생운동 | 대통령 표창(2022)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21 | 1930.1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피체되어 경찰범 처벌규칙 위반으로 20일 불기소 처분을 받음. |
| 30 | 전덕제 | 全德濟 | 1913.10.31 ~ 미상 | 학생운동 | 대통령 표창(2022)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33 | 1930.1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피체되어 경찰범 처벌규칙 위반으로 20일 불기소 처분을 받음. |
| 31 | 정귀완 | 鄭貴浣 | 1913 ~ 미상 | 학생운동 | 대통령 표창(2019) | 충남 대전역 전 79 | 1930.1.16京城女子商業學校 1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운동에 참가했다가 피체되어 拘留 20일 처분을 받음. |
| 32 | 정정화 | 鄭靖和 이명 : 鄭妙喜 | 1900.8.3~ 1991.11.2 | 중국방면 | 대통령 표창(1982)/ | 충남 연기군 전의면 | 김익한의 처 상하이로 망명해 1920~1930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적 | 공적개요 |
|----|-----|------------------|----------------------------|-----------|---------------------------------------|-------------------------------|---|
| | | | | | 애족장 (1990) | 대곡리 429 | 6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함. 임정 피난기에 정부의 안살림을 맡고 연로한 정부요인들을 돌보았으며 한국독립당, 한국혁명여성동맹, 대한애국부인회 등에 참여해 활동함. |
| 33 | 최예근 | 崔禮根 | 1924.8.17~ 2011.10.5 | 만주 방면 | 대통령 표창 (1977) /애족장 (1990) | 충남 서산 | 모친(鄭新尙)의 심부름으로 한국혁명당의 독립운동들 지원하고 어머니가 1년 6개월 옥고 중에 어머니를 대신해 기밀사항을 전달하려 봉천행 열차를 탔다가 검문 중인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 |
| 34 | 최정철 | 崔貞徹 이명 蔡氏 | 1853.6.26 ~ 1919.4.1 | 3.1 운동 | 애국장 (1995) | 충남 천안군 갈전면 기전리 99 | 병천 3.1운동 김구영의 모친 감리교 전도부인임. 1919. 4.1 병천 장날 만세시위 현장에서 아들 김구영이 총살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경에 저항하다 총검으로 찔려 순국함. |
| 35 | 한이순 | 韓二順 이명 韓菊江 | 1906.11.14. ~1980. 1.31 | 3.1운동 | 애족장 (1990) |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92 | - 양대 光明學校 학생으로 태극기를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해 1919.3.20 입장 양대리 장날에 학생 80명과 주민 600여 명이 함께 독립만세시위 행진을 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 1920 경성성서학교 입학하여 1923년에 졸업한 후 안성교회와 밀양, 대전교회와 조직원 신설교회 등지에서 전도사로 활동함. 1927년 창신학교 교감 김기삼과 결혼하고 여선교사 테이트(L. B. Tate)와 함께 8년간 지방 순회 전도활동을 하고 1940년 일본 오사카 성결 |

| 순번 | 성명 | 한자명 | 생몰년 | 운동 계열 | 훈격 (포상 연도) | 본직 | 공적개요 |
|----|-----|----------------------------|---------------------------|----------|---------------------|--------------------------------|---|
| | | | | | | | 교회 목사로 부임하는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교민 선교활동을 하다 해방 후 귀국함. |
| 36 | 홍금자 | 洪金子 | 1912 ~ 미상 | 학생 운동 | 대통령 표창 (2019) | 충북 충주군 살미면 문화리 | 태화여학교 1학년 재학 중 1930.1.15 광주학생운동에 시내 고등보통학교와 중등정도 13개교 학교 여학생들이 동맹 휴교를 단행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종로경찰서에 피체되어 경찰법 처벌규칙 제1조 제39호에 의해 20일간 구류 처분됨. |
| 37 | 황금순 | 黃金順 이명 : 黃錦順, 黃賢淑 | 1902.10.11 ~1964.10.20 | 3.1운동 | 애족장 (2015) |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102 | 양대 광명학교(光明學校) 학생으로 태극기를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해 1919.3.20 입장 양대리(良埜里) 장날에 학생 80명과 주민 600여명이 함께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음. 1930. 2 홍성(洪城) 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의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여 동맹휴학을 배후 지도한 혐의로 체포됨. 해방 후 여자국민당 당수로 1948.10 치안국 여자경찰과장을 지냄. |

2. 미포상 및 기타 여성 독립운동가

아직은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지 않았으나 충남출신으로 독립운동 내지 여성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있다.

전도부인들은 기독교 여교역자들로서 헌신과 희생적 활동으로 복음전도와 신교육 전파에 앞장선 선구자들이다. 전도부인들의 복음전도의 성과는 선교사들보다도 뛰어났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편,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한국기독교여성연구소, 1999.12)에 의하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소속의 전도부인들이 충청 지역 각지를 순회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충청 출신임이 밝혀지기도 했으나 선교본부에서 전하는 전도부인들의 경우는 세례명만이 알려져 실제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여성들도 많다. 불행한 삶을 살던 여성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었으며 인간해방이었다. 전도부인들은 교육의 전파자이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정식 학교에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성경공부를 통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영민한 어린 여자아이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개성 남감리교 충교 교회의 전도부인인 어윤희(魚允姬, 1877. 6.30~1961. 11.18)도 개성출신으로 알려졌으나 충북 충주군 서태면 덕근리에서 출생하였다. 9세까지 부친으로부터 한문을 익혀 대학까지 배웠다고 한다. 어윤희는 12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세의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본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였고 혼인한 지 3일 만에 동학군으로 나갔던 남편이 전사하고 말아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 이후 부친마저 사망하여 혈혈단신이 된 어윤희는 32세에 기독교에 입교하고 선교사의 주선으로 개성 미리흙과 호수돈여학교에서 공부하고 개성지역을 중심한 전도부인과 전도사로서 활약하였다. 어윤희는 권애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최옥분과 함께 호수돈기숙사에 50~60장의 선언서를 남겨두고 개성 지역 주요 인사들에게 선언서 배포 책임을 맡아 2월 28일 신관빈과 함께 개성 읍내의 만월정(滿月町)·북본정(北本町)·동본정(東本町) 등 각 거리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¹⁴⁾

14) 국가기록원,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pp. 560-618. 김진봉, 『3.1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pp. 235-236.

구속되었다. 개성 3.1운동에는 1,500여명의 시민들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서울에서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어유희 또한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루었다.¹⁵⁾

또한 충청도 출신은 아니지만 충청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여성이 조화벽(趙和璧)이다. 조화벽은 3월 2일에 호수돈여학교 학생대표로서 3.1운동 계획을 미리흙학교에 알리고 함께 동교학생들에게 3.1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성의 호수돈여학교, 미리흙여학교, 호수돈소학교의 학생 약 70명은 3월 2일 밤에 모여 “우리는 결사 동지이니 만일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남은 동지가 그 자를 때려죽이자” 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한 ‘연명선서’를 작성하고 선서에 연명으로 지장을 찍었다.¹⁶⁾ 여학생들은 7명 또는 10명으로 행동조(行動組)를 짰다. 3월 3일 만세시위가 일어날 기미를 파악한 일제 관헌들은 기마대를 동원하여 엄중한 경계를 펼쳤으나 학생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립만세와 찬송가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개성의 3.1운동 때에 조화벽 역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화벽은 유관순의 오빠인 유우석과 혼인하여 유관순의 올케이다. 1895년 11월 7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왕도리 116번지에서 태어났다.¹⁷⁾ 1912년 많은 인물을 배출한 원산 루씨여학교(樓氏女學校, Lucy Cunningham School) 초등과정에 입학해 공부하고 이후 역시 남감리교계의 미션계통 여학교인 개성의

15) 강영심, 어유희(1880-1961)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문화연구』17 참조.

16) 호수돈측에서는 조화벽을 비롯해 졸업을 앞두고 시위 준비 추진에 참여한 여학생은 이호진, 이경지, 柳貞熙, 김낸시, 김신도, 이경채, 李鳳根, 趙淑卿, 金信烈, 崔玉順 등 모두 17명이었다.(위의 책, p. 237)

17) 조화벽의 출생년은 1896년으로 알려졌으나 호적에 의하면 189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수돈여학교의 보통과로 전학, 4년을 수학한 후 1916년에 호수돈여학교 고등과 3년 과정을 마치고 1919년 3월 졸업을 앞두고 개성에서 3.1운동을 맞이하였다.¹⁸⁾ 개성 3.1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 양양으로 내려가 양양 3.1운동을 주도하고 시위자들에 대한 검거선봉이 일자 사촌여동생 조연벽과 친구 김정숙과 함께 양구의 산간으로 피신해 검거를 모면하였다. 산누에를 치며 숨어 지내다 검거선봉이 잠잠해지자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 호수돈여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였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유관순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주게 되었다. 누나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 병천 3.1운동 때에 체포되었고 부모는 모두 시위현장에서 일경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형 유우석(1899 ~ 1968, 아명 관옥)도 4월 1일 공주 시장 3.1운동을 주도하다 곤봉을 맞아 상처를 입은 채 체포되어 공주 검사국으로 송치되었고 역시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관순의 어린 동생들은 졸지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과 누나모두 공주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자 형과 누나를 찾아 무작정 공주로 찾아오자 영명학교 교사인 황인식(黃仁植)¹⁹⁾

18) 호수돈여학교는 남감리교 선교부가 설립한 학교로 3칸의 초가를 교사로 하고 처음 12명의 학생으로 초등교육을 시작하였다. 1909년 본관 교사가 낙성되고 1913년에 1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16년 보통학교 교사가 낙성되었다. 1917년 개성 동부와 남부에 분립해 있던 소학교가 호수돈보통학교와 연합하게 되면서 소학교 교사에는 유치우녀이 설립되었고 호수돈 교내에도 유치우녀이 설립되어 3개처에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호수돈여학교는 고등보통학교(1), 보통학교(1), 유치원(3개처)이 3부 과정을 두었다. 학제는 1918년 조선총독부 고등보통학교령을 발표되면서 3년에서 4년으로 조종되면서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인가하여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가 되었으나 실제로 학제가 변경, 운영된 때는 1922년에 들어와서이다. 조화벽 재학 중에는 보통과에 입학해 고등과를 수료하기까지는 7년 과정이었다. 조화벽이 재학 중에 교장은 Miss Ellasbe Wagner(王來)였고 교감은 Miss Lillian Nichols(芮吉秀)였다(河鯉泳, 『朝鮮南監理教會三十年紀念報』, 朝鮮南監理教會傳道局, 1930. 3. 20, pp.99-100).

19) 황인식은 1908년 공주 영명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는 교장은 윌리엄스(F. E. C. Williams)였으며 황인식은 영명학교 교사로 복무 중이었다. 이후 황인식은 윌리엄스 선교사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하여 콜롬비아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재학 중 미국에서 흥사단 단원으로 입단하기도 하였다. 1926년에 국내로

선생이 유관순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주었고 조화벽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 조화벽은 개성 3.1운동에 참여하고 무사히 피신하였으며 호수돈 학교로 복귀하여 무사히 졸업하였다. 이후 공주 영명여학교²⁰⁾의 교사로 발령받고 부임하여 황인식 선생의 집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황인식이 돌보고 있는 유관순의 두 동생을 만나게 되었다. 조화벽은 천애의 고아가 된 어린 동생들만이 아니라 부상을 입고 감옥에 수감된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의 옥바라지도 자청하였다. 유우석은 공주지방법원에서 7년형을 언도받았으나 항소하고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관순가의 비극을 접하고 환경과 처해진 상황이 유사했던 만큼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우석은 4살 연상의 조화벽을 ‘누이’로서 따르고 의지하다가 어느덧 연정을 느끼고 “결혼을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며 열렬하게 청혼하여 결혼을 망설였지만 유우석과의 결혼을 강력히 권유한 이는 어윤희였다고 한다.²¹⁾ 형기를 마친 유우석은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에 배재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학생들과 <조국수호회>라는 결사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던 중 일제에 발각되어

귀국하여 다시 영명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영명학교가 1932년 4월에 남녀학교를 병합하여 영명 실수학교(2년제)로 개편되는데, 황인식은 1941년 1월 실수학교의 대판교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 해 12월 검찰에 피검되었고 학교도 강제 폐교 당하였다. 해방 후 황인식은 영명학교 재건운동에 앞장서 1949년 영명 상업중학교로 복교 인가를 받고 제2대 교장으로 추대되었다. 1951년 8월에 영명중고등학교로 개칭한 이래 1957년 7월까지 교장으로 복무하였다. (1949. 9.28-1957. 7.25), 해양대 학장과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였다. 공주시내 영산공원에 황인식선생의 교육공로비가 서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나의 자서전, 글담, 2000)

- 20) 영명여학교는 1905년 남감리교 여선교사 햄먼드 앨리스(Mrs Alice J. Hammend, 史愛理施)가 설립한 명선학교로 출범하였다. 처음에는 주일 성경학교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여성교육 학교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점차 학교체계를 갖추면서 1913년 4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21) 유관순이 매봉산에 햇볕을 올리기 위해 올랐을 때 함께 동행한 조카 유제한은 조화벽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우석의 적극적인 청혼도 있었지만 어윤희의 권유였다고 증언하였다.

구금되기도 했다. 1923년경 혼인한 후 이들 부부는 개성으로 이주하고 이곳에서 장남 유제충의 출생²²⁾신고를 하면서 1925년 4월 14일에 비로소 혼인신고를 하고 원산으로 이주하였다.²³⁾ 조화벽은 기독교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고 원산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원산 상동에 회관)에 부회장으로서²⁴⁾ 기독교 사회활동과 남녀평등의 사회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⁵⁾ 1932년 유우석이 잠시 해외로 망명한 적이 있을 때, 조화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고향 양양으로 돌아와 부친과 협력하여 정명학원 설립하고 교육에 뛰어들었다. 정명학원은 가난과 여러 사정으로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적령기의 아이들을 교육했던 비정규학교였다. 일제 식민지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농촌사회는 피폐해져 갔을 때, 가난한 농촌을 부흥시키고 일제 관공립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을 모아서 교육하였다. 1932년부터 1944년 폐교 당할 때까지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이후 조화벽은 자신을 위한 삶은 뒤로 하고 유열사의 집안을 되살리고 유관순 열사의 추모 사업에 혼신을 다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일제 치하 식민지 상황에서 억압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많았으나 조화벽은 주체적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조화벽은 1975년 9월 3일 숙환으로 서거하고 충남 천안시 병천면 지령리에 묻힌 남편 유우석 옆에 안장되었다.

22) 유제충은 1944년 춘천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군에 강제 징발되어 만주로 끌려갔다가 탈출, 광복을 맞았다. 1948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예과를 다니다가 신병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1958년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학생운동, 청년운동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하였다. 안성 명륜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23) 元山府 銘石洞 238번지로 이전하고 1926년 1월 22일에 이적 신고를 하였다(호적 참조).

24) 원산여기독교청년회 『中外日報』 1928. 5. 22(4).

25) 『中外日報』 1927. 6.6(4).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강한 연대의식을 공유하였다. 강원도 양양을 비롯해 함경북도 함흥과 함경남도 원산, 경기도 개성 일대와 동해안가 지역, 그리고 충청남도 일대는 모두 남감리교의 선교 구역이었다. 조화벽의 집안과 유관순의 집안 모두 남감리교 기독교 선교사들의 포교활동과 기독교의 전래를 받아들였으며²⁶⁾ 두 집안 모두 향리에 교회를 설립해 신앙운동을 펼치고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며 적극적으로 기독교와 신문화를 수용하고 사회 개혁에 열정적으로 뛰어 들었다. 당시 많은 학교들은 유지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설립한 민립학교 형태가 대부분이다.²⁷⁾ 조화벽과 유관순의 집안에서도 민립 학교 설립과 교회 설립, 그리고 지역 사회의 교육진흥운동에 참여 하였다.

3.1운동에 앞장섰던 여성들은 일제의 육체적 모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고문에도 자백하지 않았다. 개성지방의 남감리교 전도부인 어윤희는 고문을 당하고도 자신에게 독립선언서 유인물을 전해준 사람을 실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윤희는 유관순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 갇혀있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저항한 유관순의 이야기를 어윤희로 부터 들을 수 있었다.

전도부인으로 활동한 노마리아(盧馬利亞, 1897.10.10 ~ 1982. 9.11)는

26) 유관순이 집안은 유증권의 사촌 동생인 柳斌基(1883~1928)의 전도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게 되었다. 공주에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그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유빈기는 괴이부(奇怡富, E. M. Cable, 1874~1949) 선교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향리에 기독교의 실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령리교회(現 매봉교회, 이하 매봉교회)는 1908년 유빈기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유빈기는 공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공주에 복음서관을 개관하면서 매봉교회는 유증권과 趙仁元(趙炳玉의 부친)이 맡아하게 되었다.

27) 병천에는 長明善成學校(趙鼎植·洪承哲 등이 설립), 興湖學校, 靑新學校(金球應 등이 설립) 등이 있었다. 유증권은 향리의 유지들이며 우국지사들인 李貞來·姜世馨·李載苾·李春凡·韓禹錫 등과 힘을 모아 향리에 興湖學校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주에서 부친 노명수(盧明洙) 모친 백정화(白貞和) 권사 사이에 무남독녀로 태어나 1913년 공주 영명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1914년 계룡면 경천 원명학교와 아산 배영여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유관순의 사촌 오빠 유경석과 결혼하고²⁸⁾ 유증무의 며느리가 되었다. 독립운동가 유제경의 모친이다. 1920년 공주에서 사애리시의 후원을 받은 공금학원이라는 야학을 세워 운영하였고 전도부인으로 활약하였다.

역시 전도부인 전밀라(全密羅 1907~1985)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전도사인 아버지 전연득(全軟得)을 따라 제천·청양·충주·원주 등지로 이주하며 유년기를 보냈다. 충주와 원주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뒤 선교사의 도움으로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했으며 교장의 권유를 받아 서울 감리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1935년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 원주지방 순회전도사로 활약하였고 1940년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신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원주 제일교회·원산 중앙교회 전도사로 활약하였다.²⁹⁾

그 외에 둔포면의 신항리 감리교회 전도사 방마리아와 송명사(1842. 10~미상)는 충남 공주군 한밭에서 출생하고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이경숙의 권고를 받아 1897년에 감리교로 입교하였다. 1878년간 정동교회 주일학교에서 부인반을 가르쳤으며 보호여회가 창립되었을 때 문학부장에 피임되어 20여 년간을 봉직한 여성이 있다. 이활란은

28) 류제경, 『근원을 찾아서 : 류제경 장로의 교회개혁 이야기』 신광과 지성사, 2015, p. 355.

29) 해방 후 1947년에는 인천 창영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고 1955년 3월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6회 중부연회에서 10명의 목사가 탄생될 때 명화옹과 함께 여성 최초로 목사인수를 받았다. 그 해에 창영교회 부목사로 시무하고 1960년 서울 불광동 양광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1966년에는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총무 피선. 1974년 4월까지 여선교회 사업 관장, 양광교회에서 시무하다가 1979년 2월 정년 은퇴, 1985년 서거하였다.

영명학교 졸업하고 1919년 공주 3.1운동 주도하다 체포되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후일 영명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충청지방에서 전도부인으로 활약한 한정선(韓貞善, 1897~?)은 1929년 7~8월, 하기방학기간 동안 온양교회에서 전도, 구미동, 온천, 마곡교회 순회전도, 중일학교 부흥에 헌신³⁰⁾했으나 출신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홍춘례는 협성여자신학교 재학 중 실습하기 위해 교회에 부임하여 부인교육을 위해 가가호호를 심방하고 농촌계몽운동에 진력했으며 공주군 계룡면 경천교회 전도 부인과 원명여학교 교원으로 복무하였다. 함정섭은 1933년 홍성 당진구역에서 교회부흥과 건축에 힘쓴 이고 홍정애는 1930년 충남 서촌에서 여전도인으로 활동하며 1930년 옥산교회에서 조신영 여전도인과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홍춘례는 협성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인교육을 위해 가가호호를 심방하였고 농촌계몽운동에 진력하였다. 공주군 계룡면 경천교회 전도부인과 원명여학교 교사로 복무하였다.

이에라의 시모와 동서인 박안라(1853.10.16.~1922.5.27.)와 오세라(1875.12.25.~1939.3.9.)도 현재까지는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지 못했으나 이순신가의 여성으로서 주목받아야 한다.

박안라는 황해도 배천에서 밀양 박씨 박준호의 장녀로 출생하였다. 16세 때에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이며 군수인 덕수 이씨 이도희와 혼인하여 아산에서 살았다. 품성이 명민하고 문학과 역사에 능숙하며 사람들을 예의로 대하였고 자녀교육에도 법도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며 자신은 돌보지 않고 항상 검소하게 살았다고

30) 1935년 11월 원산 지방을 순행하고 1937년 제6회와 제7회 동부연회 원산지방 평신도 대표를 역임했으며 원산 보혜여자관에 거주하였다. 이로 보면 원주 출신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알려졌다. 일제가 을사5조약을 강제하자 ‘척화토적(斥和討賊)’이라는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인 이규풍과 이규갑에게 대의를 받들어 의병에 참가하도록 하여 홍주의병에 가담케 하였다. 그 후 1907년 큰아들 이규풍은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여 이범윤 부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고 안중근과 함께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중에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국내로 들어오자 아들을 크게 꾸짖어 연해주로 돌려보내었다. 둘째 아들 이규갑은 한성 임시정부를 조직하였다. 이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임시의정원 충청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상해한인 청년단의 서무부장 겸 비서부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안라는 1922년 큰 아들 가족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했으나 그곳에서 1922년 5월 27일 순국하였다. 큰아들 이규풍, 오세라 부부와 그의 아들 이민호와 손자 이길영, 그리고 둘째 아들 이규갑과 이애라 부부 모두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 가문을 일구는데 모친 박안라의 영향력이 컸다. 아산 영인면 월선리 응봉산(매봉) 줄기에 1964년 충군순의비와 오충비가 건립되었는데, 박안라와 그의 큰아들 이규풍과 부인 오세라, 그리고 손자인 이민호, 둘째아들 이규갑의 부인 이심숙(이애라)의 독립운동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규갑의 묘소도 이곳에 자리하였다.

오세라는 이애라의 손윗동서로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덕피에서 오태근의 장녀로 출생했으며 이규풍과 혼인하여 충남 아산에 정착하였다. 남편 이규풍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인 이도희와 박안라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의병항쟁을 일으키고 1908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남편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집을 떠나자 시어머니 박안라를 지성으로 모시고 자녀들을 엄격하게

양육하였으며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2년 아들 이민호와 가족들 데리고 연해주로 망명하고 이후 남편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32년 남편이 숨지자 아들을 따라 중국 북경(北京)으로 가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1939년 3월 9일에 북경에서 타계하였다.

임영신(任永信 1899.11.20. ~1977.2.17.)은 1899년 11월 20일, 부친 임구환(任九桓), 모친 김경순(金敬順)의 12남매 중 다섯째로 충남 금산군³¹⁾ 상옥 1리에서 출생하였다. 영문명은 루이스 임(Luise Yim)이다. 공주 남감리교 전도로 기독교에 입교했으며 사애리시의 지도를 받고 1914년 전주의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입학해 1918년에 졸업하였다. 3.1운동 당시 천안 입장 양대리 광명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입장 3.1운동을 주도한 3명의 여학생들에게 3.1운동을 일으키도록 지도하고 본인은 전주로 내려와 기전여학교 출신 여성들과 3월 12일 전주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자 여학생들의 주도한 양대리 3.1운동은 3월 20일에 일어났다. 3.1운동에 참여한 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고 석방 후인 11월에 일본 히로시마기독교여자전문학교(廣島基督女子專門學校)로 유학하여 1921년에 졸업하였다. 공주 영명학교 교사를 지내고 10월에 공주 YMCA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1925년 미국으로 유학해 1930년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을 졸업하고 1931년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와이로 건너가 호놀룰루에서 잠시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지원하였다. 1932년 중앙보육학교를 설립하고 1933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YWCA) 총무를 지냈고 1945년 중앙여자전문학교를 설립해 교장을 역임하였다.³²⁾

31) 금산군은 본래 전북이었으나 1963에 충남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32) 해방 후는 1946년 중앙여자대학(지금의 중앙대학교)을 설립, 학장에 취임했다. 1946년

박루이사(朴累以斯, 박회숙)은 1913년 공주 영명여학교 첫 졸업생으로 노마리아와 함께 졸업하였다. 1915년 영명여학교 고등과 입학, 1917년 졸업 후 이화학당으로 편입하였다. 3.1운동 당시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었는데 서울에서의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1919년 3월 23일 경에 공주로 귀향하여 영명학교의 이활란 등에게 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고취하였다. 4월 1일 공주읍내 장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미국 유학, 성악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영명학교 음악교사로 부임하였다. 광복 이후 서울 중앙대학교 부설 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충남 예산에서 활동한 윤송당(尹松堂)의 출신 및 성장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고 기독교와의 관련도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경우이다. 윤송당은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경제적 독립을 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적 기계 등의 기술을 가르쳐 직업훈련을 함과 동시에 상품 개발을 하여 본점은 예산에 두고 서울에도 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송당의 이력에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경남 울산공립보통학교에 교사, 1921년 충남 광천공립보통학교 교사,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예산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가 1926년에 교직을 그만두고 1927년 2월 1일에 예산에서 여성 직업소개소를 처음 열었다는 이력이 알려지고 있다. 윤송당이 정확히 충청출신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27년 3월 28일부터 여성 직업장을 경영하며 옷감을 짜는 기직전습생(機織傳習生) 20명과 여성 직업장 직공 30여명에게 기직술 훈련을 시키는 한편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조선 민주의원 의원, 1948~49년 초대 상공부장관, 1948년 제헌의회 의원, 1950년 제2대 민의원, 국제연합(UN) 총회 한국대표를 지내고 1977년 2월 17일 서거하였다.

1개월간의 하기강습회를 개최하여 수신, 조선어, 산술, 일어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1927년 10월 2일에는 22인이 모여 여자흥업사를 창립하고 “조선여자는 경제적 해방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여자 자활방침의 하나로 방적·기예 등 여자에게 적당한 공업기관 설치를 목표로 기식전습소(機織傳習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일반 면직물 제조와 양말제조 등 기직술(機織術)을 여성들에게 전습시켰다. 이후 여자흥업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는 추적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한 여자직업소개소가 예산지역에 출현한 점은 주목된다.

충남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엄항섭의 처인 연미당(1908.7.15. ~1981.1.1.)은 북간도 용정에서 출생했으나 그녀의 부친 연병환의 본적을 따라 충남 출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연미당의 부친인 연병환은 충남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에서 출생하여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를 나와 중국 해관에 취업하고 여러 해관에서 근무하며 많은 독립자금을 내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IV. 3.1운동과 충남 여성

충청지역의 3.1운동은 3월 3일 예산에서 시작되었다. 충남지역만으로 보면 4월 말까지 공주, 금산, 남포, 노성, 논산, 당진, 대전, 면천, 목천, 병천, 보령, 부여, 비인, 서산(해미), 서천, 아산, 연기, 연산, 예산, 은진, 정산, 천안, 청양, 태안, 한산, 홍성, 회덕 등 195개면 256개리, 327곳에서 모두 339회 이상의 만세시위운동이 두 달간 전개되었는데,³³⁾ 충남의

33)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9. 일제강점기』, 2008, p. 27.

거의 모든 지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³⁴⁾ 조선총독부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3.1운동의 검거된 각도별 남녀 총 검거자수는 19,054명인데 그 중 여성이 471명으로, 전체 2.5%를 점한다. 여자 검거자수를 순위별로 보면, 경기도 141명, 황해도 85명, 경남 72명, 평남 46명, 평북 26명, 함북 26명, 경북 22명, 전북 17명, 충남 13명, 전남 6명, 강원 6명, 국외 6명, 함남 5명, 충북 0명 순이다. 즉 검거된 충남 여성은 13명으로 지역별 전국 순위로 보면 9위 정도이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총 34건, 54명의 3.1운동 참여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교사(9명), 학생(26명), 간호사(5명), 기생(2명)³⁵⁾, 개신교 전도사(3명) · 교회 총무(1명) · 이발업(1명) · 재봉업(1명) · 무직(3명)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2명, 40대

- 34) 3월 6일에 부여 임천 구교에서, 3월 7일 공주, 부여에서 3월 8일에 서천 화양과 홍성 광천에서, 3월 9일에 예산에서 10일에 공주 논산 강경과 당진 면천에서, 11일에 아산 온양, 3월 12일에 대전 인동, 공주, 아산 온양, 논산에서 13일 연기 전의와 예산 동서, 14일 천안 입장과 공주 유구, 아산의 온양과 영등지에서 16일 대전의 인동과 유성, 천안, 당진, 서산, 17일 공주, 18일 홍성 광천, 19일 서산과 해미, 20일 천안 입장, 논산 강경, 21일 홍성의 광천, 은하, 대전, 태안에서 23일 연기 북면, 조치원, 남면, 서면과 연기 금남에서, 24일 서산 해미, 25일 대전 동면 세천, 26일 연기의 북면, 동면, 음암, 27일 대전 인동, 연기 동면, 서산, 28일 대전 유천, 천안 입장, 연기의 조치원, 동면, 논산 강경, 29일 대전 기성, 천안, 연기 조치원 전동 청송, 서천 마장 신장, 30일 천안의 입장 풍세, 풍서, 연기 조치원 서면 기룡 논산 강경, 31일 대전 유성, 천안 성환, 연기의 북면, 남면, 아산 탕정, 염치, 배방, 송악, 논산 강경, 서산 필봉, 4월 1일 대전 인동, 유성, 치마, 회덕, 산내, 천안 병천, 성환, 직산, 공주, 정안, 장기, 의당, 연기 남면, 아산 온양, 탕정, 염치, 배방, 온양 둔포, 홍성 금마, 논산 강경, 은진, 두마 부여 은산, 4월 2일 공주 의당, 계룡, 우성, 연기 금남, 아산영인, 신창, 홍성, 당진 면천, 함덕, 공주 탄천, 4월 3일 연기 남면, 아산 영인 인주 둔포, 청양 운곡, 논산, 광천, 노성, 예산, 고덕, 신례원, 대술, 신암, 신장, 당진 순성, 면천 보령 대천, 4월 4일 아산 선장, 홍성 금마, 홍북, 홍동, 구항, 홍성 장곡, 논산 강경, 광석, 예산, 당진 대호지, 순성, 면천, 송악, 4월 5일 홍성 홍동, 청양 정산, 예산, 4월 6일 청양 화성, 예산, 청양 정산, 목면, 운곡, 4월 7일 홍성 장곡, 구항, 정산, 청양 화성, 남양, 논산의 논산, 강경, 연산 4월 8일 홍성 홍동, 장곡, 고도, 청양 운곡, 비봉, 화성, 장평, 당진 대호지, 서산 정미, 성연, 운산 4월 9일 홍성 은하, 청양 비봉, 4월 10일 서산 음암, 운산, 보령 대천, 4월 17일 보령 주산, 4월 20일 연기 남면, 4월 30일 서천 중천 등 충남 전역으로 파급되었다.
- 35) 기생 이소선씨와 정막래씨는 경남 통영에서 기생단을 조직해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1명, 30대 6명, 20대 18명, 10대 27명으로 10대와 2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충남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황해, 평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전국의 여성들의 3.1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서대문형무소 수형기록 카드에 충남으로 기재된 여성은 공주 김현경(무직), 천안 민옥금(광명여학교 학생), 한이순(광명여학교 학생), 황금순(광명여학교 학생), 유관순(이하여학교 학생) 5인이다. 국내외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여성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들의 이름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여성들은 공주와 아산 백암리, 천안 양대리와 천안 병천의 3.1운동에 각각 참여하였다.

1. 공주 3.1운동

공주에서 첫 3.1운동은 1919년 3월 2일에 공주읍 시장의 장날에 독립만세를 부르려는 시도가 있었고 3월 14일 오후 4시경 유구 장터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유구 장터와 우시장을 돌며 만세를 외치자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보가 황병주를 체포해갔다. 이에 주민들은 주재소로 몰려가 주재소 출입문과 창문을 깨부수고 황병주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급기야 공주읍에서 급파된 헌병경찰이 시위를 강제 진압되고 주동자들을 체포되었다. 4월 1일 아침, 정안 석송리에서는 이기한이 마을 주민들을 모아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광정리를 향해

3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3·1운동 97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판결문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카드'를 정리하여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를 발간하였다. 3.1여성독립운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의의, 제2부 판결문과 수형기록 카드에 대한 해제, 제3부 판결문, 수형기록카드 원본과 번역본 수록하고 있다.

행진하였다. 나무심기 부역에 동원되었던 운궁리 주민들이 작업 연장을 들고 합세하는 등 정오쯤에는 수백 명으로 불어났으며 광정시장에서 만세를 외치다 주재소를 포위하고 담장과 계시판, 유리창을 깨뜨리고 오후 3시경에 해산하였다. 그런데 석송리 주막거리에 모여 있던 30여 명의 주민들 앞에 공주읍내에서 자동차로 달려오는 순사들이 나타나자 주민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만세를 외쳤고 경찰들과 난투극을 벌여졌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일경의 발포로 총을 맞고 즉사하였고 십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날 밤 주민들은 다시 횃불을 들고 광정리 주재소로 가서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한편 3월 24일 오후 9시경 영명학교에서 목사 현석칠과 안창호, 영명학교 교사 김관희, 현언동과 영명여학교 교사 이규상과 동경 유학생 김사현, 안성호, 오익표 등 9명이 모여 현석칠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4월 1일 공주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학생과 주민들을 끌어모아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 여성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활란은 원명여학교 교사 김현경 집에 모인 영명여학교 학생 6~7명에게 물건을 사는 척 위장하고 시장에 잠입했으며 김현경은 태극기 1개를 휴대하고 이규상과 함께 시장에 잠입하였다. 약속한 오후 2시가 되자 김수철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자 대략 1,000여명에 달했던 시장사람들이 만세시위에 동참하였다. 영명학교 학생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시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만세시위에 앞장섰다. 당일 시위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공주읍 교회의 여성 신도들이었다. 만세 시위에 앞장섰던 영명학교 학생들과 여성들은 출동한 일본 헌병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김현경은 징역 4개월, 박루이사와 이활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9세의 박루이사는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중 서울에서의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1919년 3월 23일 경에 귀향하여 영명학교의 이활란 등에게 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고취하였다. 당시 21세였던 이활란은 후일 영명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공주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피검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주감옥에 투옥되었던 김현경³⁷⁾은 미결로 5개월간의 옥고를 치루고 나와 이화학당 보육과에 입학하였다. 어느 날 이화학당 후라이교장은 그녀를 호출해 유관순 면회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침 오빠 유우석도 당시 공주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상태라 함께 이들은 함께 서대문 형무소로 유관순의 면회를 갔었다. 유관순은 아우내 장터 만세 시위 때 부상을 당한 곳을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되는 심문을 받았다. 특히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 서대문감옥에서 만세를 선창한 유관순은 주모자로 끌려가 지독한 폭행을 당하여 전신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³⁸⁾ 그러나 유관순은 일제의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내장이 파열된 상태였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지독한 고통이 따랐을 것이다. 면회를 가서 유관순을 지켜볼 수 있었던 김현정은 “만져보니 살이 썩어서 피가 묻어요 너무 불쌍해서 세브란스에 입원시키거나 가출옥 시켜 달라고 간청했으나 거절당했어요. 죽게 되면 기별해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 때 유관순은 면회 온 오빠 유우석에게 “오빠 나는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도 원통하지

37) 김현경은 후일 金順点으로 개명하였다.

38) 당시 유관순은 옥중에서 만세를 불러 글러가 매를 맞은 후에도 날마다 날마다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유관순이 끌려가 매를 맞을 때면 “죽여라. 난 죽어도 상관없다. 내 목숨 죽어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해방된다면 너희놈들을 몰아낸다면 나는 열 번 죽어도 백번 죽어도 좋다”고 나는 죽더라도 죽기까지 싸운다”고 말했다고 한다(서대문형무소에 함께 투옥된 이화학당 교사 박인덕의 증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화여고 교장 신봉조 산생과의 대담에서, 1978년 10월 7일자).

않아요 부족하나마 난 내 의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생각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유우석은 “너는 다른 사람이 칠십년을 살아도 못할 일을 하지 않았니”하며 위로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공주 여러 곳에서도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의당면(4.1), 정안면 대산리(4.2), 장기면 대교리(4.3), 우성면 도천리·쌍신리·동대리(4.3), 탄천면(4.3), 주외면 용당리(4.4), 목동면 이인리(4.4), 계룡면 경천리(4.4), 반포면 상신리(4.5) 등이다. 조선군사령부의 ‘조선 소요사건 일람표’에 따르면 공주 관내 만세시위로 1명이 죽고 13명이 부상했으며 총 86명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2. 아산 백암리 3.1운동

아산지방에서 3.1운동은 3월 11일 온양 보통학교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 4월 4일까지 25일간 온양, 탕정, 염치, 배방, 송악, 둔포, 신창,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음봉면 등 12개면에서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점차 면사무소, 헌병주재소, 보통학교 시설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만세시위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아산의 3.1운동 중에서 여성들이 주도한 것은 3월 31일에 염치면 백암리의 만세시위이다. 김복희는 서울 3.1운동을 목격하고 학교가 임시 휴교되자 유관순과 마찬가지로 고향인 아산 백암리로 가서 자신의 선생이었던 한연순을 찾아가 서울 3.1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백암교회 장로인 김상철의 협력을 받아 오후 8시 각 마을 주민들 20여명과 함께 마을 북쪽의 방화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고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같은 날 밤 탕정면, 염치면, 배방면 및 송악면 등의 여러 면에서는 각 동리 산 50여 개소에서 동시에 횃불시위가 시작되었고

2천 5백여 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 시위에 동참하였다. 일경의 진압이 시작되자 김복희와 한연순은 피신했지만 일제의 수소문 끝에 4월 22일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월형을 선고받고 공주 감옥에 투옥되었다. 1919년 7월 9일에 출옥한 김복희는 미주 신한민보에 먼저 편지를 보냈고 신한민보는 김복희에게 답장을 보내 3.1운동의 경험을 기고해 할 것을 요청하고 시간이 좀 지나 김복희가 보낸 편지는 신한민보 1919년 9월 25일자에 출옥 후 발한 어떤 여학생의 편지'라는 머릿기사로 보도되었고³⁹⁾

39) "○ 출옥 후에 발한 어떤 여학생의 편지

분명치도 못한 상서를 하옵고 받아 보셨는지 궁금하던 차에 받아 보셨다는 답장을 속히 하신고로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속히 답장하라고 하셨으나 무슨 연고로 인하여 여태까지 있었으니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는 경성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사람인데 지금 집에 내려와 있는 중이올시다. 내려와 있는 즉 깊은 촌이 되어서 소식도 잘 들을 수 없고 궁금하옵더니 소식을 듣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측량할 수 없사옵나이다. 일도 일같이 되지 못하고 감옥에까지 갔다 나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마는 부탁하신고로 두어 말씀 드리려고 하나이다.

우리 조선 13도가 다 떠드는 바이니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다름 아니오라 지난 3월 30일에 춘원씨와 같이 밤에 산성에 불을 키워놓고 그 동리 사람들과 한 30여 명이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는데 남자들은 헌병분견소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일해주고 매를 30도, 60도씩 받고 나오고 여자로는 춘원씨와 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는 둘이 다 같으나 춘원씨는 선생이라고 하여 3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고 저는 2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나이다. 선고는 2개월이지만은 유치장으로 미결수로 있던 동안까지 치면 집에 오기를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춘원씨는 5개월 만에 나오나이다. 본월 13일에 감옥에서 나온다 하옵나이다. 구미동을 다녀서 경성으로 해서 집에 내려간답니다. 우리 연락하고 미성난 여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 당하던 일이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말할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던 일은 처음 감옥서에 들어가서는 미결수로 하여 구류실에 꼭 가두어 두더니 판결 받은 후에는 징역군의 옷을 입고 일을 시키는데 모두 공장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더이다. 이번 사건으로 들어간 여자들은 삼 삼는 일을 시켜서 삼을 삼다가 나왔나이다. 음식은 짐승 먹이는 것과 같이 해서 주는데 기가 막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생전에 당해보지 못한 별별 고생을 다 당해보았습니다.

공주감옥에 소위 '소요사건'으로 들어온 여자가 열인데 2인은 서울로 호송하여 경성으로 갔고 8인이 있었고 남자는 얼마인지 부지기수입니다. 수백 명 청년들이 청년의 활발한 기상을 썩히고 감옥 생활을 하며 여러 신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한숨이 나옵니다마는 괴로움이 온 후에야 즐거움이 온다는 것은 물론인고로 오직 상천의 공정하신 처분만 기다리옵나이다. 천부께서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춘원씨가 나와서 무엇 할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의학을 공부할 의견을 가진가 보옵나이다.

신문기사 중 춘원씨는 백암리 영명학교 교사인 한연순을 가리킨다. 이렇게나마 김복희는 3.1운동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며느리 김광신은 1980년에 시어머니 자신의 기록과 시어머니를 회고하는 한 글을 『우리 어머니 - 김복희 장로의 일생』(김광신, 1980)으로 정리하였다. 김복순은 3.1운동의 기억을 회고하면서 방화산에 모인 50명 중에서 여성은 김복희와 한연순 뿐이었으며 아산에서 공주로 이송되어 “공주 감옥에 들어가 보니 (중략) 이미 류관순이 잡혀와 있었고, (중략) 매일같이 심문 받으며 괴롭힘을 받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3. 양대리 3.1운동

직산 양대리(良岱里) 3.1운동의 출발이 양대리 금광촌 학교의 세 여학생들에 의해 준비되고 계획되었다. 양대사립여숙(광명학교) 교사 임영신은 1919년 2월 28일 학교로 찾아온 함태영 목사로부터 독립 선언서 1장을 받아 수 백매를 등사하여 3월 2일 전주로 가지고 가고 남은 것은 여학생 민옥금·한이순·황금순 등에게 천안 양대 3.1운동을 주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만들어진 태극기는 양대리에 사는 조쌍동(당 19세)⁴⁰⁾에 의해 전 가구(家口)에 돌리고 3월 20일 양대리와 입장장날에 일제히 동민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도록 사전 연락을 치하였다. 3월 20일 오전 10시 무렵, 양대 광명학교 학생 80명을 인솔하고 4km 떨어진 입장시장으로 행진 중 천안에서 출동한 일본 헌병과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하실 수 있는 대로 자주 소식을 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충충하여 이만 그치옵니다.

8월 12일 김복희는 ○○복도 ○○군 ○○면 ○○리에서 씀.”

40) 조쌍동은 부락 공회당에 게양된 일장기를 내려 불태워 만세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킨 자이다.

충돌하여 5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일부는 시장에 이르러 마침 입장장날에 인근에서 모인 수천 명의 장보러 온 농민, 상인,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만세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⁴¹⁾

양대리는 금광촌이다. 일찍이 직산 금광에 눈독을 들인 일제는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인 사이에 직산군 금광 합동 조약을 체결해 충남 천안시 입장면 양대리에 조선중앙광업소를 설립하였다.⁴²⁾ 1906년 광업법으로 외국인들에게 금광의 문호를 열어주면서 일본에 이어 미국도 금광 채굴의 이권을 받았기에 직산 일대는 파헤쳐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조선중앙광업소는 직산 광산에서 막대한 양의 광석을 채굴하였다. 이 곳 직산 광산은 당시 금 산출량이 많아 ‘노다지’라는 말을 만들어낸 평북 운산광산 다음가는 산출량을 가진 광업소였다.

채광지역도 직산 외에 천안과 목천까지 확대되기도 했으며 일본인의 자본과 기술도 들어왔고 금을 찾아 밀려드는 외부 사람들, 돈과 기술은

41) ○증언(3·1여성동지회 회원 민원숙(민옥금, 민옥석 동일인) : 그날 우리는 3월 20일 장날로 정하고 조용히 골방에서 장 속 깊숙히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놓고 그리기에 4주야를 지새웠다. 20일 아침에 준비했던 상복을 갈아입고 추렁추렁 땀아 늘인 머리끝에 흰 땀기를 물리고 베 허리띠를 간편하게 매고 14년간 나를 품어왔던 집을 나섰다. (중략) 7시 30분에 학교에 모인 (중략) 한도숙·황현숙 그리고 나 우리 세 사람은 옥양복에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태극기를 힘차게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교정을 나와 주재소 앞을 지나 회사 광장에 모였다. 큰 길로 물밀듯이 나가면서 부르는 만세소리는 온 마을을 진동시켰고 마을 주민들, 부락민들 2,000여 명이 우리와 함께 합세하여 10리길에 선 장터로 연결되었다. 이리자 40리 밖 천안에서 기마병들이 달려오는데 파도같이 밀려가는 만세 시위 군중과 마주치니 말발굽에 채여 넘어지고 몽둥이로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 그 때 나는 쇠망치도 몽둥이도 아닌 무엇인가가 내 머리를 쳤다는 것만 알뿐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피로 쓴 ‘백절불굴, 목적달’(중략) 우리는 1년 형기를 받고 유관순은 7년형을 받아 서울로 공소되었다. 유관순은 그 후 5년형을 받아 3년 후에 옥사했다. 우리 세 사람은 춘하추동 형기를 마치고 옥문을 나서니 때는 저녁이라 “아 하늘이 넓다. 별들도 많다”라는 말이 내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중략)

42)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금광채굴권을 승인받고 처음 시굴한 아사노 소이찌로(淺野総一郎)로 그는 유명한 일본인 자본가 시부사와 에이지(澁澤榮一)와 합작하고 금광 개발에 착수하였다.

천안 지역의 전통사회를 급격히 해체시켰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양대리에 조선중앙광업소 사무소가 차려지고 1917년에는 미국인⁴³⁾이, 광산채굴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었고⁴⁴⁾ 평북 운산금광에 이어 산출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노다지 꿈을 안고 외지인들이 모여들어 400호수가 사는 마을이었다. 천안 지역에서 처음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1919년 3월 14일 오후 4시 경에 목천보통학교 학생 120명이 모인 가운데 학교 교정에서 시작되었다. 목천에 이어 3.1운동이 일어난 곳은 직산읍 입장면 양대리 3.1운동이다.

이곳의 3.1운동은 3월 20일 전적으로 양대 광명여학교 여학생들의

43) 1917년 12월 10일에 설립된 稷山金鑛은 J.R.Geri가 대표로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100에 본점을 두고 요코하마 山下町에 지점을 두고 2,000,000 엔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한 하였다. 직산지방 및 부근의 각종 광물을 채굴하고 및 그에 관한 부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이다(中村資良 編, 稷山金鑛(株), 『朝鮮銀行會社要錄』, 東洋經濟新報社, 1921 p. 116).

44) 직산금광은 공내부 소속의 대한제국 광산이 있었으나 1899년 무렵부터 일본인의 불법 채굴이 기승을 부렸다. 1900년 8월 일본 민간인이 대한제국과 채굴 합동조약을 체결하고 입장면 양대리에 조선중앙광업소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1910년 강제 병합 이후에 직산 금광의 채굴권은 미국인에게 양도되어 3.1운동 당시에 직산금광은 미국인이 운영하였다. 직산군 이동면과 삼동면 일대에 걸쳐 광산이 분포되었다. 안성군 일어학교를 경영하던 일본인 복지진장(福祉辰藏 : 후쿠시 다쓰소)은 1899년 8월 이동면에 있는 영남인 덕대의 광혈(鑛穴)을 인수하였다. 이어서 이서면(二西面)과 삼동면(三東面)의 보덕원(保德院)까지 채굴지를 확장하였다. 양대리 광산은 직산군 이동면에 속해 있었다. 당시 직산광산을 운영한 이는 앨버트 테일러(Albert Wilder 'Bruce' Taylor)였다. 운산의 금광 기술자였던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George Alexander Taylor)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96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운산금광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1908년 아버지 조지가 사망한 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금광 사업과 무역상을 하였다. 직산 금광의 한국탐사회사(Korean Exploration Co.)의 총지배인(General manager)이면서 UPI 통신사의 서울 특파원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1919년 2월 2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 브루스 테일러(Bruce Tickell Taylor)가 태어났는데, 이튿날이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다. 아기를 보기 위해 저녁 무렵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앨버트는 침대에 누인 아기를 안아 올리다가 요람 아래 세브란스 간호원들이 감춰놓은 '독립선언서'를 발견하였다. 앨버트 테일러는 동생 빌리 테일러를 통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도쿄로 반출하는데 성공하였고 도쿄의 통신사망을 통해 미국으로 타진되어 3·1 운동의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메리 린리 테일러저, 송영달 역, 『호박 목걸이-딜쿠샤 안주인 메리 테일러의 서울살이, 1917~1948』 책과 함께, 2014.

주도로 시작되었다. 양대리 학교는 공주에 기지를 두고 있는 선교사 윌리엄스(禹利岩, Frank Earl Cranston Williams, 1883~1962)⁴⁵⁾가 이 곳 광산촌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여자교육을 위해 양대여숙(良岱女塾)을 세웠고 이 학교가 바로 사립광명학교(私立 光明學校)이다. 양대리 3.1운동을 주도한 여학생들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14세의 미성년인데 일제는 17세, 18세로 나이를 늘려 여학생들에게 실행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여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양대리 3.1운동은 이후 3월 28일의 직산 금광 광부들이 참여한 직산 3.1운동으로 크게 번져나갔으며 3월 30일에 풍세면 풍서리 주변 산 위 20여 개소에서 일어난 햇불 시위와 3월 31일 성환면에서의 만세시위에 큰 영향을 끼쳤다.

4. 병천(아우내) 3.1운동

천안·연기·청주·진천 등지의 교회·학교를 돌아다니며 4월 1일의 아우내 장날을 이용,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병천 즉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은 성남면(城南面)·갈전면 주민들과 또 한 부류는 유관순이 속한 동면(東面)의 주민들이었다.

45) 영명학교 교장이며 공주 동지방(천안지방) 감리사인 윌리엄스는 미국 콜로라도 주 뉴원저에서 출생하였다. 1906년 덴버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여름에 부인과 함께 내한하였다. 이듬해(1907) 공주에 파송되어 1940년까지 근무하였다. 1907년 미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공주읍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농촌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에서도 농촌지도자 배출에 역점을 두고 교육하였다. 1940년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에 의해 본국으로 강제 귀환당한 후 인도로 부임, 가지아바드(Ghaziabad)에 있는 농업학교에서 봉직하였다. 1945년 8.15해방 후 미군정청 하지 중장의 농업정책 고문으로 다시 내한하여 활약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선교사직에 복귀, 일본 나가사키에 부임하여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학교 재건에 전력하였다. 이후 1954년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하였으며, 1962년 샌디에이고에서 사망하였다.

이들 주동자가 서로 연락을 취하며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합동으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시위하기로 약속한 날 전날인 3월 31일 자정을 기해 다음날의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알리는 봉화를 요소마다 올렸다. 4월 1일 오전 9시, 병천 장터에는 천안군 일대뿐만 아니라 청주·진천 방면에서도 장꾼과 장꾼을 가장한 시위 군중 3천명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유관순은 미리 만들어 온 태극기를 시위 군중에게 나누어주었다. 오후 1시 조인원이 긴 장대에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높이 달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였고 아우내 장터는 삼시간에 시위중의 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유관순은 장대에 매단 큰 태극기를 들고 시위대열에 앞장섰다. 오후 2시경, 응원요청을 받은 헌병 분견대원과 수비대원 30여명이 트럭을 타고 도착하여 총검을 휘두르고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였다. 시위군중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일본 헌병들은 시위 군중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발포하고 칼로 쓰러뜨렸다. 일본군의 잔혹한 총격과 총검에 유관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관순과 만세시위자들은 체포되어 공주 검사구로 송치되었다. 같은 날 공주에서는 영명학교에 다니던 오빠 유우석(준석)이 공주 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일경의 칼에 찔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체포됐다. 유관순은 숙부 유증무와 조인원 등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내내 유관순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일제의 판결에 불복해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3년형이 확정되었다.

서대문 감옥에 투옥된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다 많은 고문을 당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이 되자 유관순은 또다시 감옥 안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짖었다. 유관순의 만세 선창을 듣고 투옥된

이들이 따라서 만세를 부르자 형무소 안은 만세 시위장을 방불케 하였다. 형무소 옥리들은 제일 먼저 만세를 선창한 유관순을 끌어내어 구타하였고 유관순의 내장과 방광이 파열되었다.

무차별 폭력으로 인해 유관순의 상태가 심각해졌음을 감지한 일제 당국은 그녀를 치료해보고자 했지만 그녀는 치료를 거부하였다. 고문의 후유증과 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고통을 당하다가 1920년 9월 28일, 만 18세의 나이로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 안에서 죽음에 이르렀다. 유관순은 역시 3.1운동으로 수형된 어윤희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당시 유관순은 자기 육신의 고통보다도 부모를 잃고 남겨지게 된 동생들에 대한 걱정으로 상심하고 슬퍼했다고 한다.

천안지방 감리사 윌리엄스가 미감리회 제20회 조선연회에서의 보고 내용은 아산 백암 3.1운동에서의 김복희와 한연순, 그리고 병천 3.1운동의 유관순가의 비극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아산 옆치면 백암동) 구미동 교회는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곤란 하였는데 여학교 교사와 학생이 기개월 징역하고 근일 출옥하였으며 천안 북구역은 교회 3곳, 기도실 한 곳인데 독립운동에 소요로 인하여 수개월간 예배를 정지할뿐더러 주재 목사가 만주로 떠나가 목사가 없이 곤란이더니 전번 예배 시작일에 120여 명이 참배한 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천안 동구역은 본 구역에 중심지되는 병천시장에서 지난 4월 1일에 장날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시위운동을 열렬히 하는 동시에 일본 헌병에게 20여인이 참혹한 경상(景狀)당하는 중에 신자가 3인이었으며 그 중에 제일 참혹해 말하기 어려운 것은 교우의 가족이 당한 사실외이다. 주인 부부는 참살을 당하였고 그의 자제는 여러 달 동안 감옥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고생을 당하였고 그의 여식은 3년 징역에 선고를 받았고 그의 어린 아들 두 아이는 의탁할 곳 없는 가련한 지경의

상황은 목불인견이외다. 큰 한란을 당하였으나 신자들이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일행전진하여 교무를 처리하는 중이외다.....”⁴⁶⁾

V.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에 나선 충청여성

1929년 12월 9일의 서울시내 각 학교의 항쟁에 이어서 12월 10일에도 휘문, 숙명, 근화, 협성실업, 청년학관, 배재고보 등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고 혹은 통곡을 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이화, 여자상업, 동덕, 실천여학교, 경성농업, 법정학교, 고등예비학교, 선린상업 한국인 학생 등이 광주학생 지원을 위하여 분기하며 성토, 통곡,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1월 15일 오전 10시를 전후하여 서울시내의 사립 중등급의 중요 학교 학생들이 이른바 1월 항쟁의 전단을 끊고 봉기하였다. (중략) 같은 날 (중략) 여상 학생과 실천여학교 학생들은 한때 합세하여 기세를 올렸고, 동덕여고보와 정명여교 학생도 교내에서 쫓기하였다.

이러한 서울학생의 1월 항쟁은 1월 20일이 된 현재로 각 교의 출석자 총수는 2천 3백 명에 달했으며, 경찰에 피검된 학생은 4백 명이나 되었다. 일제는 광주학생운동 그 이유는 금번 일어난 각 학교생도들의 운동이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요 민족적 의미를 가진 민중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소요죄로 잡아들여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했으나⁴⁷⁾ 사건 확대가 더 큰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여학생들에게 관대한 처치를 취할 것을 언명하고 주모자 8명만을 기소하고 25명의 여학생에게는

46) 기독교 미감리회 제20회 조선연회록, 1919, pp.75~76.

47) 『東亞日報』 1930. 1.16일자.

기소유예 형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⁴⁸⁾ 이들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로 가담한 충청출신 여학생들은 충청지역 현지가 아닌 서울 유학 중에 서울 지역 학생들의 동조 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피체된 여학생들이다.

VI. 맺음말

여성 독립운동사는 나라의 독립을 찾고자 하는 항일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의 봉건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 해방운동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여성은 나라를 잃은 독립운동의 시기로 인해 남녀 모두에게 성평등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사 전개 과정에서 여성의 활약상은 전시대에 비한다면 괄목상대할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하며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 연구 성과가 여전히 미진하다. 그렇기에 출신 지역별로 그 정체성을 정의하는 일은 아직은 선부른 일일 수도 있다.

기독교 복음은 전 근대 봉건시대에 여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각성을 가져다주었고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받은 전도부인들의 복음 전파력은 그 어떤 선교사들의 복음 성과보다도 우세했기에 전도부인은 충청지역의 기독교 복음과 여성해방에 큰 성과를 이루어낸 주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충청도 여성은 남감리교 여선교사 및 전도부인들과 성경을 공부하며 한글을 깨우치고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학습의 기억과 굳건한 믿음의 신앙은 의식화를 가져다주었고 여성 내면을

48) 『東亞日報』 1930. 2.11일자.

단련시켜줌으로써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충청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여성에게 교육은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가부장적 사고를 유지하려 했기에 충청 여성의 개화와 근대화 과정은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고통스러웠다. 도덕체제로 구축된 유교의 오랜 전통과 보수의 벽이 그만큼 두터웠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안으로 봉건사회를 개혁하고 밖으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맞서 대처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여성들은 근대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중세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고 본다.

더욱이 식민지 체제하의 독립운동 시기에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해방과 사회의 해방,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하나의 가치로 보았고 여성 해방의 가치보다는 민족의 해방의 가치를 우선시 하고 민족의 해방 없이 한국 여성은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각오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충청의 여성들은 충청지역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또는 국외로 나가 더욱 활발한 자취를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오히려 충청지역은 여성운동의 충분한 조건을 조성해줄 만한 운동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에 여러 지역 여성들에 의해 국채보상의연단체가 만들어졌으나 충청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⁴⁹⁾ 1927년 여성 유일 통일전선체로 조직된 근우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음에도 충남지역에 하나의 지회도 설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의식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본다.

49) 1927년 여성 조직의 통일과 여성들의 공고한 단결을 짓기 위해 결성된 근우회는 비록 1930년에 일제에 의해 해산되고 마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60개의 지방 지회를 거느리고 있었으나 충남지역에는 한 곳의 지회도 결성되지 않았다.

비록 타 지역에 비해 3.1운동과 학생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지만 3.1운동을 주도한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목격하면서 여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시대를 보는 세계관 역시 크게 확대됨으로써 여성들의 참여 없이 온존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남녀가 독립된 국민국가의 건설의 비전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2023년은 독립운동의 3세대가 지나는 시점이기에 기록 없는 개인의 자취를 추적해서 복원하는 일이 늦어버렸지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출신 여성인물들을 발굴하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다층적인 삶의 모습이 사라지기 전 기록하는 일이 우선의 과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서원보(Wilbur C. Swearer)(1902), 『1902년 충청도지역 보고』, 『미감리회 연회록』.
- 기독교 미감리회(1919), 『제20회 조선연회록』.
- 미출간 김인애(1957), 『全羅北道 全州 紀全女學校 己未年 大韓獨立萬歲 運動』.
- 추영수(1971), 『久遠의 햇볕』, 중앙여자고등학교 3.1선도자 찬하회.
- 김광신(1980), 『우리 어머니 - 김복희 장로의 일생』.
- 천안문화원(1995), 『天安獨立運動史』.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1999.12),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여성사 연구회편).
- 황인식(2000),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나의 자서전』, 글담.
- 김진봉(2000), 『3.1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 강영심, 『어윤희(1880-1961)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문화연구』 17.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08), 『충청남도지 9(일제강점기)』.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9), 『충청남도 여성의 삶과 역사』.
- 메리 린리 테일러 저(2014), 『호박 목걸이-딜쿠샤 안주인 메리 테일러의 서울살이, 1917~1948』, 송영달, 책과함께.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2015), 『충북여성인물사 I: 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
- 류제경(2015), 『근원을 찾아서 : 류제경 장로의 교회개혁 이야기』 신앙과 지성사.
- 이명화(2015), 『延徽堂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담론』, 호서사학회.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201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

이명화(2018), 『3.1운동과 조화벽의 삶』, 『한국여성독립운동가』 3.1여성
동지회.

임연철(2019), 『이야기 사애리시』 신앙과지성사.

『開闢』, 『大韓每日申報』, 『東亞日報』, 『新韓民報』, 『中外日報』
中村資良 編, 稷山金鑛(株), 『朝鮮銀行會社要錄』, 東洋經濟新報社,
1921.

河鯉泳(1930), 『朝鮮南監理教會三十年紀念報』, 朝鮮南監理教會傳道局.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the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Chungcheong Province

Myung Hwa Lee*

Abstract

The history of the Korean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was not only an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that sought national independence, but also a human liberation movement that sought to break away from feudalism within the nation. Ironically, it was only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hen the country was taken away that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began to take root in society. In the course of Korea's modern history, women's activities have achieved remarkable growth compared to the previous era, but research results are still insufficient to give meaning.

In modern times, the Christian gospel brought about an awakening that women had not experienced in the pre-modern feudal era. Since the Bible women educated by Christian missionaries had a greater ability to spread the gospel than any other missionaries, the Bible women can be evaluated as the leading figures who achieved great results in the Christian gospel and women's liberation in the Chungcheong Province.

Women in Chungcheong Province were able to learn the Korean alphabet and overcome illiteracy by studying the Bible with female missionaries and Bible women from the Southern Methodist Church. Memories of learning and strong faith brought awareness and strengthened women's inner self, giving them the strength to overcome any adversity.

Feudalism persisted in the Chungcheong Province for a long time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women were dismissed as socially inferior and in need of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ss of enlightenment and modernization for women in Chungcheong was more painful than any other region due to the dominance of the

*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Director(Email: waff58@hanmail.net)

patriarchal idea that women are subordinate to men. This is because the long tradition of Confucianism, which was built as a moral system, and the wall of conservatism were that thick. Modern enlightened women had the dual task of reforming feudal society internally and opposing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force externally, but women who did not enjoy the benefits of education remained stuck in medieval thinking even into modern times. Nevertheless, in the colonial system, women fought for the value of national liberation above their own liberation, and entered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the determination that women's liberation could never be achieved without national liberation.

Rather than staying in the Chungcheong province, women in Chungcheong left traces of an active independence movement by moving to other regions or abroad. Therefore, the Chungcheong region could not create an ecosystem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where the women's movement could develop. At the time of the National Debt Compensation Movement in 1907, national debt compensation organizations were created by women in various regions, but they were not found in any of them in the Chungcheong Province. In addition, although the Geunwoohoe(근우회), which was founded in 1927 as the women's only unified cooperative front organization, developed into a national organization, the fact that no branches were established in the South Chungcheong region speaks for this phenomenon.

Although the proportion of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student movement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other regions, we can see that awareness of women in gender and class discrimination is changing significantly as we witness the dedication and sacrifice of Chungcheong women who led the March 1st Movement. Along with these changes of the times, women's worldview and historical awareness also changed significantly, leading to the realization that an intact community could not be maintained without women's participation. In this way, the vision of building an independent nation-state without gender discrimination could finally be unified.

Keyword: Chungcheong Province's Womens History,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Gender Perspective, The Bible Women, The National Debt Compensation Movement/Alice Hammond Sharp(Mrs. Robert Arthur Sharp), The March 1st Movement in Gong-ju, Youngmyung School in Gong-ju, Gwangmyeong school in Yangdae-ri, The March 1st Movement in Baekam-ri, Franke Earl Cranston Williams, Gwangju Student Movement